

## I. 삼국통일

1. 삼국통일 과정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I. 삼국통일

### 1. 삼국통일 과정

#### 1) 7세기 신라의 내정변화

7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新羅는 국내외의 정세변화로 말미암아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 내정에 있어서 眞平王이 眞智王을 폐위시키고 왕권을 장악하여 善德·眞德 두 여왕에게 계승되는 동안 진지왕의 아들 龍春과 그 아들 春秋로 이어지면서 왕권을 되찾기에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 결국 김춘추가 太宗武烈王으로 나가기까지는 신라 지배층간에 상호 결속력이 약화되어 대외적 문제들을 적극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신라는 고구려·백제의 도발을 받아오던 중 특히 백제의 빈번한 침입으로 자국의 國土守護마저 불안하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던 상황이었다. 셋째,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보아 신라는 삼국간의 세력균형 속에서 존속·발전해 왔다. 4세기부터는 고구려와 親交하여 백제·가야세력을 견제해 왔고, 다시 고구려가 北守南進의 기세를 뚜렷이 보이자 신라는 백제와 羅濟共守同盟을 체결하여 訥祗王 17년(433)부터 진흥왕 14년(553)까지 120년간 고구려를 방어하고 자국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백제가 聖王 7년(551) 고구려로부터 탈환한 漢江下流地域을 진흥왕 14년에는 신라가 백제로부터 탈취함으로써 나제동맹은 파기되고 삼국이 각각 대립항쟁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바로 이 무렵 중국대륙에서는 2백여 년간 지속된 魏晉南北朝시대의 막을 내리고 6세기말부터 隋·唐이 통일제국을 이룩하면서 수·당중심의 국제질서로 재편성하려 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던 신라는 내적 정권변동을 추진하면서도 정

치적 안정이 요구되었고, 삼국간의 대립에서 국토를 팽창시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력한 국제상황에 적응해야 했다. 이렇게 절박한 국가적 현실문제를 하나하나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이었던 것이다.

신라의 국가적 기반을 확립한 것은 眞興王代(540~576)였으므로 통일기반도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흥왕에게는 銅輪과 舍輪(金輪)의 두 王子가 있었는데 太子로 책봉된 장자 동륜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차자인 사륜이 眞智王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진지왕 4년(579)에 왕위를 폐위시키고 동륜의 아들 白淨이 眞平王으로 즉위하였다.

이런 사실로 보아 진흥왕 33년(572)에 동륜이 죽자, 정계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그 지지세력이 사륜(진지왕)系와 백정(진평왕)系로 양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계가 양분된 이유는 각자의 정치권력상 이해관계가 작용했겠지만, 그들의 명분은 상이했을 것이다. 이 두 왕의 출자로 보아서 진지왕 지지파는 왕의 현실적 지배능력을 강조한 반면, 진평왕 지지세력은 王統의 원칙적 장자상속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또 두 세력의 핵심인물로서는 진지왕 원년에 上大等을 자임한 居柒夫를 중심으로 奈勿王系가 진지왕 추대의 핵심세력이라 믿어지고, 이에 반발하여 진평왕을 추대한 핵심인물은 진평왕 원년(579)에 상대등이 된 弩里夫였을 것이다. 거칠부는 진흥왕대 《國史》 편찬과 북방의 국토확장으로 유명하지만, 노리부는 《三國史記》 거칠부전에 보이는 8장군 중 奴夫이고 〈丹陽赤城碑〉에 나타난 內禮夫와 동일 인물로 알려졌다.<sup>1)</sup> 따라서 이 두 사람은 함께 북방진출의 주역으로 활동했고 같은 喙部 출신이면서도 왕위계승 등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해왔다고 보인다.

결국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진평왕을 즉위시키는 政爭의 와중에서 거칠부를 중심한 내물왕계가 몰락했을 것이다. 거칠부도 이후 기록에 보이지 않지만, 진평왕 9년에 내물왕 7대손 아찬 冬臺의 아들인 大世가 신라의 좁은 山谷을 한탄하며 吳越로 떠났다는 일화로 당시의 정정이 짐작된다. 또 진평왕 43년에는 唐으로 가버린 6頭品 出身 薛颺頭가 신라는 用人함에 있어 骨品을

1) 李基白, 〈丹陽赤城碑 發見의 意義와 赤城碑 王敎事部分의 檢討〉(《史學志》 12, 檀國大, 1978), 28쪽.

논하여 그 族이 아니면 비록 鴻才傑功이 있다 하더라도 신분을 넘어서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는 골품제사회의 폐쇄성 위에 왕위계승을 둘러싼 정쟁이 타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될 문제이다.

비록 진평왕이 쿠데타에 의해서 왕권을 장악했지만, 진지왕의 자손은 홀대할 수 없었던 듯하다. 진지왕의 아들 용춘(龍樹)과 그 아들 춘추가 진평·선덕·진덕왕대에 걸쳐 계속 중용되었고, 이런 정치적 활동을 기반으로 춘추의 王權 획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평왕대는 반대파인 진지왕 지지세력을 제거 혹은 흡수하면서 자파의 강화정책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行政機構의 신설과 확장만 보아도 位和府·調府·禮部·領客府·侍衛府를 설치하였다. 특히 진평왕 46년에 시위부를 설치했다는 것은 왕의 威儀와 신변보호라는 관점에서 주목된다.<sup>2)</sup> 이러한 조치는 행정력의 강화인 동시에 和白會議라는 귀족집단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면서 왕권을 보호·강화하는 데 노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과정에 용춘이 활약하고 있었다. 즉 진평왕 7년에는 三宮(大宮·梁宮·沙梁宮)에 각각 私臣을 두어 관장케 했지만, 재위 44년에는 內省에 사신 1인을 두어 3궁을 兼掌케 하였는데, 그가 곧 이찬 용춘이었다. 내성은 왕실의 여러 업무를 담당한 宮內府와 같은 것으로서 왕성을 수호하는 시위부와 함께 왕의 신변과 王家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의 하나였다.<sup>3)</sup> 또 용춘은 진평왕의 둘째 공주 天明夫人과 결혼한 부마였으므로<sup>4)</sup> 진평왕과 밀착되어 왕실보호에 적격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춘은 처음부터 진평왕과 밀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세력이었을 것이다. 만일 진평왕의 쿠데타가 없었다면 용춘은 父王인 진지왕을 계승하여 왕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춘이 內省私臣에 오르고 부마가 되었다는 사실은 진평왕이 반대세력을 끌어들이,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진지왕의 지지세력이 도태되는 상황에서 용춘 또한 권력계에 살아남

2) 《三國遺事》 권 1, 紀異 2의 '桃花女 鼻荊郎' 설화는 眞智王系에 대한 眞平王의 경계와 흡수라는 상징적 표현일 것이라는 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三國史記》 권 4, 新羅本記 4, 진평왕 44년.

4)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新羅 骨品制와 花郎徒》, 一潮閣, 1984), 83쪽.

기 위해서도 자기의 현실적 불만을 잠재시키고 왕권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평왕 53년(631)에 伊滄 柒宿과 阿滄 石品の 謀叛事件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성격은 씨족의 集團主義理念과 王子支配意識간의 갈등이라 하지만,<sup>5)</sup> 왕위계승문제를 중심한 왕권과 和白權의 대립으로 빚어진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모반은 현제제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 그 시기가 진평왕 말인 점을 고려하면 왕위계승문제로 모반했다 볼 수 있다. 결국 善德女王이 즉위한 것은 왕권의 승리이며 종래 진평왕 지지세력의 승리였다. 선덕여왕의 즉위는 聖骨의 男子가 없었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것은 용춘을 비롯한 眞骨貴族의 누구도 아직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의문시 되는 것은 眞骨王의 시초가 金春秋로부터 비롯되었다 했는데 왜 그가 진골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진지왕비의 父 起烏公이 葛文王 칭호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母系에 관계가 있으리라는 추측과,<sup>6)</sup> 성골이 上代의 진골에 대한 후세의 追稱인 이상 奈勿王·眞智王도 진골이라는 견해가 있다.<sup>7)</sup> 성골이 언제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진지왕이 특별히 진골일 이유가 없다.<sup>8)</sup> 추측건대 진지왕을 폐위시키면서 그 자손을 진골로 강등시켜 일단 왕위계승권을 박탈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것이 진평왕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용춘을 등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았겠나 믿어진다.

다시 용춘은 진평왕 51년에 大將軍으로서 金舒玄·金庾信 등과 고구려 娘

5) 今西龍, 〈新羅骨品考〉(《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60), 211쪽.

6) 池內宏, 〈新羅の骨品制と王統〉(《滿鮮史研究》上世 2, 吉川弘文館, 1960), 570쪽.

7) 李基東, 앞의 책, 88쪽에서 “眞智王에 대한 武烈王系の 始祖觀은 中代에 들어와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고, 中古末의 어느 시기, 가령 眞興王의 直系인 銅輪太子의 直系卑屬으로 구성된 小里나이즈集團이 排他的으로 나머지 王室親族集團의 構成員이 갖고 있는 眞骨보다도 한층 높은 신분으로서 聖骨을 주장했을 때 成立되었을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龍春을 眞骨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시기는 善德女王的 卽位 以前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8) 銅輪과 舍輪은 同腹兄弟라고 믿으며 사륜이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 없으나 즉위 후 妃를 맞았다는 기록은 없다. 今西龍說을 믿는다면 그는 眞骨로 왕위에 오른 셈이므로 믿을 수 없다.

臂城을 정복하였다. 또 선덕여왕 4년(636)에는 아찬 水品과 각 州縣을 순회하여 민심을 안정시켰고, 선덕여왕 12년에는 왕실과 국가적 사업이라 할 皇龍寺九層塔의 창건을 감독하였다. 이런 그의 역할은 일견 용춘에 대한 왕의 신뢰를 뜻하는 듯하지만, 핵심적 정치권력계에서는 소외된 부분에 종사하여 결정된 정책을 실천하는 위치였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용춘과 서현이 동일한 戰場에 참가하여 두 家門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고, 이는 양 가문이 戰功에 의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同病相憐의 처지가 투합되었을 것이다.

김유신 가문은 法興王 19년(532)에 투항한 金官國主 金仇亥(仇衡)가 本國(金官國)을 食邑으로 받고 沙梁部에 정착하였다. 이후 그 아들 武力은 국토확장 사업에 참여하여 眞興王 14년(553)에 新州軍主가 된 것으로 보아 戰功이 컸다고 믿어진다. 군주는 단순한 外職이 아니라 兵部令 · 上大等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중앙의 제일급 인물이 받을 수 있는 관직이었음을 고려하면,<sup>9)</sup> 중앙 귀족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신 가문은 외래 투항인으로서 그 한계성이 있었다. 이는 그들의 결혼설화에서 엿보인다. 김무력의 아들 김서현은 肅訖宗(법흥왕의 동생 立宗 葛文王의 아들)의 딸 萬明과의 결혼이 野合에 의해 성취되었는데 이때 숙흥종이 딸 만명을 別第에 가두어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이다. 이는 서현이 왕족과 혼인할 만큼 확고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증거이다.<sup>10)</sup> 또 김유신의 여동생 文姬(文明夫人)와 김춘추의 결혼 이야기는 김유신의 政略같은 설화로 느껴진다.<sup>11)</sup>

이와 같은 한계 속에서 김춘추 가문이 용춘·춘추의父子에 걸쳐 왕실과 밀착하며 일정한 정치적 위치를 확보하는 동안, 김유신 가문 또한 구형·무력·서현·유신의 4대를 거치면서 신라의 발전과 왕실의 안정에 지대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양가가 한층 결속해갔다는 점이다.

9) 申滢植, 〈金庾信家門의 成立과 活動〉(《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246쪽.

10) 申滢植, 위의 책, 249쪽.

11) 《三國遺事》 권 1, 紀異 2, 太宗金春秋公條에서 善德女王 때라 했다.

선덕여왕 16년(647)에 毗曇 · 廉宗의 반란이 일어났다. 비담은 “여왕이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擧兵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비담 등 30여인이 죽음을 당했다.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은 《三國史記》金庾信傳(上)에 상세히 전한다. 비담의 군대는 明活山城에 포진하고 김유신이 지휘하는 王軍은 月城에 포진하여 10여 일 동안 공방전을 벌인 끝에 비담을 죽이고 그 九族까지 처형했다는 것이다. 이때는 선덕여왕말 진덕여왕초이고 처음 비담군이 여왕을 폐위시키려 했으나 “왕이 스스로 방어했다”는 것이다. 비담의 난이 일어난 선덕여왕 16년(647) 전후는 신라가 일대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였다. 즉, 선덕여왕 11년에는 백제에게 大耶城 등 40여 성을 빼앗겨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외교를 갔었으나 실패하였다. 이때 김유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 접경에 가서 김춘추를 돌려보내라고 시위한 것도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진덕여왕 원년(647)에는 김춘추의 對唐外交로 羅唐軍事同盟이라는 획기적 성과를 얻었으나 이 동맹이 백제를 제압하는 데 직접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선덕여왕 14년에는 唐의 고구려 침공을 도와 신라에서도 3만 군을 동원해서 고구려 南境을 공격함으로써 준군사동맹의 체제로 들어갔지만 이 틈에 백제에게 國西 7城을 빼앗겼던 것이다.

문제된 비담의 반란 명분은 선덕여왕 12년에 당으로 파견된 신라사신에게 당 太宗이 말한 것과 일치하므로 주목된다.<sup>12)</sup> 태종의 발언은 신라의 독자성을 무시한 모욕적 언사였지만 비담 등은 현재의 왕실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비담의 난은 당의 책동에 자극받아 일어난 신라 내부의 국론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또다시 여왕의 즉위를 반대하는 세력과 王黨派 사이의 대립으로 표출된 것이다.

비담의 난에 대한 견해는 첫째, 이 난을 일으킨 편은 실제 상대등 비담이 아니라 퇴위를 강요받은 善德女王측이라는 주장으로서, 곧 왕당파의 친위쿠데타라는 것이다.<sup>13)</sup> 둘째, 정당한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 왕위에 대한 결정은 和白的 의결사항이며 그 첫 대상은 상대등이므로 이 난은 상대등 비담이

12)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선덕여왕 12년.

13) 井上秀雄, 〈新羅政治制度の變遷過程〉(《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社, 1974), 441쪽.

왕위쟁탈을 목적으로 일으켰고 추대될 사람도 바로 비담이라는 주장이다.<sup>14)</sup> 셋째, 김춘추·김유신 등 新興勢力과 비담 등 舊貴族勢力간의 쟁패전이었으며, 선덕여왕 개인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핵에서 밀려난 原銅輪系の 反眞智王系 運動이라는 견해이다.<sup>15)</sup> 선덕여왕이 비담의 난중에 죽은 점으로 보아, 왕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줄을 알고 왕위계승을 의논하던 중, 비담 등은 진덕여왕의 옹립을 반대했고, 김춘추·김유신과 이들과 제휴한 關川 등은 진덕여왕의 옹립을 적극 주장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여의치 않았던 비담이 직접 왕위획득을 목적으로 난을 일으켰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비담의 난 결과, 진덕여왕을 옹립한 왕당파가 승리함으로써 신흥세력인 김춘추·김유신 등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김춘추의 태종무열왕권을 창출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듯하다. 따라서 진덕여왕 5년(651)에 설치한 執事部는 이런 정치세력의 변동과 그 맥락을 같이했다고 생각된다. 집사부의 기능이 王命의 시행과 일반 행정관부의 통제였다면, 화백회의 및 상대등으로 대표되는 귀족세력을 통제하려는 전제왕권의 필요에 의한 설치라고 보기 때문이다.<sup>16)</sup> 그렇다면 왕권전제화를 표방하면서 실은 김춘추·김유신 등이 실권장악을 위한 조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들 신흥세력이 확고한 권력기반을 형성했다지만 김춘추가 귀족사회를 대표하는 제1인자는 아니었다. 진덕여왕이 즉위하자 상대등에 오른 이찬 알천이 그 대표적 존재였다. 당시 다른 귀족이 김유신의 위엄에 복종하였지만, 알천이 席首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잘 전해준다.<sup>17)</sup> 결국 구귀족에 속하면서 신흥세력에 가까운 알천이 신·구세력의 중재에 적격자였을 것이다.

진덕여왕이 죽자 김춘추가 태종무열왕으로 즉위하였는데(654)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 群臣은 알천을 왕위계승자로 추대했으나, 그가 김춘추에게 사양했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귀족의 결의를 무시하고 김춘추의 合法性과 正統性を 확보하려는 수단에 불과했다고 믿어진다.

14) 李基白, 〈上大等考〉(《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00~101쪽.

15) 申澄植, 〈武烈王系の 成立과 活動〉(앞의 책), 116쪽.

16)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앞의 책), 151~153쪽.

17) 李基白, 〈大等考〉(위의 책), 80쪽.



요컨대 무열왕권은 신라 내부의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政爭을 통하여 획득된 것이었다. 이것은 王室이 성골에서 진골로 전환된 시초였지만, 이런 갈등과정으로 인해 對麗濟抗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내적 갈등으로 대외항쟁에 국력을 결집하지 못하여 신라는 장기간 守勢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된다.

## 2) 대여제항쟁과 나당군사동맹

### (1) 대여제항쟁

4, 5세기의 신라는 고구려를 통하여 前秦과 외교하는 한편 백제·가야·왜 등을 견제하여 자국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그런데 고구려가 長壽王 15년(427) 평양천도를 단행하자 더욱 위협을 느낀 것은 백제였다. 이에 신라는 백제의 제의에 동감하여 訥祗王 17년(433) 羅濟共守同盟을 맺었다. 이 동맹은 고구려의 남진을 신라·백제가 공동방어하는 동시에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성을 표방한 것이었다.

신라와 고구려간의 최초 충돌은 눌지왕 34년이었지만 이때 고구려는 신라와 修好國임을 강조했고 신라는 공손한 말로 사과했다는 것이다.<sup>18)</sup> 이후 고구려의 신라 침공이 계속되었으나 신라 炤知王 3년(481)의 彌秩夫(興海)전투를 고비로 점차 신라의 반격에 밀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나제간에 상호 원병이 효과를 거두었지만, 中原高句麗碑의 건립 추정연대가 소지왕 3년인 점을 고려하면 5세기말까지 고구려는 역시 신라의 두려운 존재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장수왕 63년(475)에 百濟 漢城이 고구려군에 의해 함락되고 蓋鹵王이 전사했지만, 백제와 동맹국으로서의 신라는 고구려와 곧 대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진흥왕 12년(551)에는 백제군과 나란히 北進하여 신라는 고구려 10郡을 정복했고 백제는 한강하류의 6군을 탈환하였다. 그런데 진흥왕 14년에

18)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34년.

백제로부터 이 6군을 탈취함으로써 나제동맹은 파기되고 삼국의 相互抗爭期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 고구려는 귀족간의 정쟁과 밖으로 突厥의 위협으로 인해 南顧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나,<sup>19)</sup> 신라는 한강유역을 확보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백제간의 국경을 차단함으로써 양국의 침공을 받게 되어 신라는 孤立을 면할 수 없었다. 6세기 후반은 삼국간의 전쟁이 소강상태였으나, 7세기 전반에 신라·고구려 사이에는 5차례의 격돌이 나타나 있다.

〈표 1〉

7세기 羅麗交戰

연도	신라	교전	고구려	교전지역	전황
603	眞平 25	←	嬰陽 14	北漢山城	진평왕이 率兵하고 漢水를 건너서 항전하니 高句麗軍 퇴각.
608	眞平 30	←	嬰陽 19	新羅北境, 牛鳴山城	고구려군이 침습하여 8천 인을 노획하고 신라 우명산성도 함락.
629	眞平 51	→	榮留 12	高句麗 娘臂城	신라군이 娘臂城을 함락하고 참살 5천.
638	善德 7	←	榮留 21	七重城外	고구려군 퇴각.
655	武烈 2	←	寶臧 14	新羅北境	고구려·백제·말갈 침입, 신라 33城을 함락

이 시기 고구려는 수·당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중국과 대등한 자존적 입장을 취하면서 北守南進의 자세로 다시 신라를 침공했던 것 같다. 처음은 北漢山城을 침공해 왔고, 다음은 신라 북경을 침입하여 8천 인을 포로해 갔고 牛鳴山城을 함락하였다. 이 두 차례의 침입이 5년의 간극을 두었으나 모두 고구려 영양왕 때 사실이고 고구려의 대수전쟁기간이라는 면에서도 주목된다. 수의 침략을 방어하면서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재탈환하려는 의도였던 듯하다. 특히 溫達장군이 빼앗긴 雞立峴·竹嶺以西지역을 회복하

19) 盧泰敦,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韓國史研究》 13, 1976), 29~57쪽.

기 위해 출정했다가 阿且城 밑에서 전사한 것도 영양왕 때의 일이었다.<sup>20)</sup> 또 선덕여왕 7년(638)에 七重城(積城)을 침입한 고구려군은 알천의 군이 격퇴하였다. 또 태종무열왕 2년(655)에 고구려·백제·말갈이 連兵하여 북경의 33성을 습취해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갈은 고구려에 복속된 부류이며 麗濟의 連兵이라는 기록이 문제된다. 흔히 이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했다고 서술하지만 이는 신라의 對唐外交과정에서 교묘히 날조된 것이며, 실은 고구려와 백제가 각각 신라 변경을 침입하여 도합 30여 성을 습취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21)</sup> 이에 반하여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예는 진평왕 51년(629)에 娘臂城을 함락하여 5천여 명을 참살했다는 것이 유일한 전과이다.

이상 《三國史記》에 나타난 羅麗간의 항쟁에서, 진흥왕 12년부터 진평왕 24년 사이에는 전쟁이 없고, 7세기 전반 50여 년간에 5~6회의 전쟁뿐이며 접전지역도 북한산성·칠중성이므로 낭비성 또한 북방이라 추측된다.<sup>22)</sup> 따라서 신라는 고구려의 北守南進을 방어하여 확장된 북경을 착실히 수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세기에 접어들면서 백제와의 항쟁은 더욱 격렬하고 심각했다.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탈환한 한강하류를 신라가 진흥왕 14년(553)에 탈취함으로써 동맹이 파기되고 적대관계로 돌변하였다. 이에 격분한 백제 聖王은 제위 32년(554)에 3만 군으로 신라 管山城(沃川)을 침공하였으나 신라의 선방으로 참패하면서 백제는 거의 50여 년간 신라와 항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6세기 후반에는 단지 威德王 24년(577)·25년의 공방전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진평왕 24년부터 무열왕 2년까지는 총 25회의 전쟁에서 백제의 선제공격이 20회, 신라의 선제공격이 5회이므로 백제의 침공이 압도적이었다. 이 시기는 백제 武王·義慈王代이고, 신라에서는 진평왕·선덕여왕·진덕여왕대

20) 李基白, 〈溫達傳의 檢討〉(《白山學報》3, 1967), 148쪽.

21) 李昊榮, 〈麗·濟連和說의 檢討〉(《慶熙史學》9·10합집, 1982), 30쪽.

22) 李元根, 〈百濟 娘臂城考〉(《史學志》10, 檀國大, 1976), 11쪽에서 淸州로 비정했고,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乙酉文化社, 1977), 319쪽에서는 威鏡道 어느 곳으로 추측했다. 이 낭비성은 최근에 抱川 半月山城이라는 주장이 있어 주목된다(徐榮一,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28, 1995, 36쪽).

에 해당하여 신라는 내적인 권력투쟁과 왕권다툼이 계속되었던 관계로 백제의 도발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제 양국관계가 긴박해짐에 따라 국경에 築城이 더욱 많았을 것인데, 신라 眞智王 2년(577)에는 內利西城을 쌓아 梗蒜城·麻知城과 나란히 하여 백제의 침공을 방어코자 했더니, 백제에서는 熊峴城·松述城을 쌓아 위의 신라 성과 맞선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격렬한 신라·백제간의 실전을 살펴보면 花郎徒를 비롯한 당시 젊은이들이 圓光의 世俗五戒 중 「臨戰無退」를 護國의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진평왕 24년의 阿莫城 전투에서는 貴山과 籌項이 분전하다가 전사하였다. 또 진평왕 33년에는 椴岑城(居昌郡?)에 침입한 백제군과 100일 동안 싸우다가 縣令 讚德 등이 전사하고 성도 함몰되었다. 이에 北漢山城主 邊品은 진평왕 40년에 가잠성 탈환작전을 전개했는데 찬덕의 아들 奚論이 20여 세로 종군하여 전사했다는 것이다. 또 진평왕 46년에는 백제군이 신라의 速含(咸陽郡) 등 6城을 침공하였는데 급찬 訥催가 城兵과 함께 역전했지만 늘최는 전사하고 6성도 함락당했다.

당시 신라정부는 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의 5軍을 동원하여 구원케 했지만, 백제군의 당당함을 겁내어 진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늘최의 武勇과 대조되는 한편 5군의 작전이 歸一되지 못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던 점을 볼 수 있어서, 전세가 신라쪽에 불리하게 나타나 있다. 이 같이 해이한 수세로 인하여, 善德女王 11년(642)에는 國西의 40여 성을 백제에게 빼앗기고, 이해 8월에는 백제 장군 允忠의 1만 군에게 大耶城(陝川)이 함락되고 都督 品釋 등이 전사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런 신라군의 참패는 백제 大軍의 집요한 공격에도 있었겠지만, 신라군 내부의 불화도 큰 원인이었다. 즉 품석은 그 幕客인 黔日에게 원한을 샀던 바, 김일이 백제군에게 內應했으며, 품석의 보좌관인 西川은 은밀히 백제군에게 항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대야성군의 내적 불화와 戰意의 상실을 엿볼 수 있다.

〈표 2〉

## 羅・濟相爭

연도	신라	교전	백제	교전지역	전황
554	眞興 15	←	聖王 32	신라 管山城(沃川)	백제 성왕, 4인의 좌평이 전사함과 동시에 3만 명의 군대가 무너짐
562	眞興 23	←	威德 4	신라 國邊	왕이 군사를 내어 백제군 1천 인을 살획함
577	眞智 2	←	威德 24	신라 西邊 州郡	이찬 世宗이 一善北에서 격파하여 3,700급을 참획.
578	眞智 3	→	威德 25	백제 關也山城(礪山)	신라가 알아산성을 공격
602	眞平 24	←	武王 3	신라 阿莫城(雲峯)	백제군을 대파했으나 貴山・箒項이 전사.
605	眞平 27	→	武王 6	백제 영역	신라가 發兵하여 백제를 침공.
611	眞平 33	←	武王 12	신라 椶岑城	100일간 전투, 신라 현령 讀德이 전사. 성이 함몰.
616	眞平 38	←	武王 17	신라 母山城(雲峯)	백제가 내공.
618	眞平 40	→	武王 19	백제가 영유한 가잠성	漢山州 軍主 邊品이 가잠성을 회복하려고 침공. 奚論이 전사.
623	眞平 45	←	威德 24	신라 勒弩縣	
624	眞平 46	←	威德 25	신라 速含(咸陽)・櫻岑・岐岑・烽岑・旗縣・穴柵	이 6성은 백제군에게 함락・항복하였다. 訥催가 전사.
626	眞平 48	←	威德 27	신라 主在城	신라 주재성주 東所가 전사.
627	眞平 49	←	威德 28	신라 西邊 2城	백제장군 沙乞이 2성을 함락시키고 300여 인을 포로해 감.
628	眞平 50	←	威德 29	신라 가잠성	진평왕이 군사로 격퇴
633	善德 2	←	威德 34	신라 西谷城	백제군이 13일 만에 서곡성 함락
636	善德 5	←	威德 37	신라 西南邊의 玉門谷(女根谷)・獨山城 근처	신라장군 알천이 백제군 500인을 참살.
642	善德 11. 7	←	義慈 2	신라 獼猴城 등 40여 성	의자왕이 大兵으로 침공하여 40여 성을 공취해 감
	善德 11. 8	←	義慈 2	신라 大耶城(陝川)	백제장군 允忠군사가 대야성을 攻拔. 도독 品釋과 竹竹・龍石 등이 전사

연도	신라	교전	백제	교전지역	전황
644	善德 13. 9	→	義慈 4	백제 7성	대장군 金庾信이 백제 7성을 攻取.
	善德 14. 1	←		신라 買利浦城	백제 大軍이 침입하자 대장군 김유신이 반격하여 2,000급 참수.
	善德 14. 3	←	義慈 4	신라 西邊	대장군 김유신이 출정.
	善德 14. 5	←	義慈 4	신라 國西 7성	백제군이 습취해 감.
647	眞德 1.10	←	義慈 7	신라 茂山·甘勿·桐岑	金庾信의 步騎 1만 명이 방어. 丕寧子·舉眞 전사. 백제병 3천급 참수.
648	眞德 2. 3	←	義慈 8	신라 腰車城(尙州) 등 10여 성	백제장군 義直이 침습. 김유신군이 3路로 협격하여 격퇴
649	眞德 3. 8	←	義慈 9	신라 石吐 등 7성 道薩城(天安?) 부근	백제장군 殷相군이 7성을 攻陷. 대장군 김유신과 장군 陳春·竹旨·天存 등 군이 방어하여, 백제 장사 100인·군졸 8,980급 참수. 戰馬 1만 필 획득. 병기 무수.
655	武烈 2	←	義慈 15	신라 北境 33성	고구려·백제·말갈이 연합하여 33성을 공취해 감
660	武烈 7	→	義慈 20	백제 泗泚城	羅唐聯合軍에게 백제 패망.

\* 《三國史記》, 新羅本紀를 중심으로 작성.

또 참패요인에는 城 중심의 방어체제에도 있었다고 본다. 백제는 대병을 동원하여 기습하므로 신라의 여러 성에 흩어져 있는 소수의 守城軍이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수세에 있던 신라는 대야성전투를 전후하여 적극적 방어와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군사체제에 새로운 정비가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선덕여왕 13년(644)에는 김유신군이 백제 7城을 습취했고, 그 이듬해에는 백제군 2천 명을 참수했으며, 선덕여왕 14년에는 步·騎 1만 명을 거느린 김유신이 적 3천 명을 참수했다고 하였다. 진덕여왕 2년에 김유신을 押督州(慶山)都督으로 삼은 것은 이 해에 백제장군 義直이 腰車城(尙州)을 침입한 때문이라 했는데, 이는 대야성·加兮城(居昌)지역을 방어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덕여왕 3년에는 김유신군이 道薩城(天安) 밑에서 백제 장사 100인, 군졸 8,980명을 참했고 戰馬 1만 필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백제군의 침입은 현재의 경상·충청도의 전 국경선에서 일어났는데 주로 김유신이 방어에 나서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생각건대 선덕여왕 11년(642) 김춘추가 고구려에 원병외교로 갔을 때 김유신이 군대를 동원했고, 선덕여왕 14년에 당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신라는 3만 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남경을 공격하였으며, 선덕여왕 16년 김유신이 비담의 난을 평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김유신은 1만 명 이상의 大兵을 거느리고 백제의 침입을 방어하는 동시에 金春秋가 후일에 왕위를 획득하는 군사적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믿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빈번한 침공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신라는 국방상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 (2) 나당군사동맹

삼국간의 상호항쟁은 신라·고구려·백제 사이의 좁은 국제문제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주위의 여러 나라와 보다 넓은 국제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581년 隋帝國이 성립되고, 다시 618년에는 唐이 수를 멸하고 수립되었다. 이 수·당의 통일제국은 주위의 돌궐·거란·토곡혼 등을 복속하고 동북아시아의 覇者임을 자처하여 각각 수·당 중심의 국제질서를 세우려고 하였다. 이제는 위진남북조시대의 세력균형에 의한 각국의 존립이 아니라 수·당에 의한 강자만의 논리가 곧 국제질서를 재편성할 기세였다.

이 같은 중국의 수·당에 맞서 가장 완강한 대립을 보인 것은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비록 말은 藩臣이라 칭하면서도 誠節이 미진하다”는 책망과 동시에 굴종을 강요하는 수에 대하여<sup>23)</sup> 遼西지방을 선제공격함으로써 고구려의 독자성을 과시하였다. 이에 수는 4차에 걸쳐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고구려는 이를 모두 격퇴하며 薩水大捷(淸川江) 같은 큰 전승을 거두기도 하였다.<sup>24)</sup> 다

23) 《三國史記》권 19, 高句麗本紀 7, 평원왕 32년.

24) 《한국사》2(국사편찬위원회, 1977), 496쪽.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隋-新羅로 연결된 東西세력과, 突厥-高句麗-百濟-倭로 연결되는 南北세력이 팽팽히 맞서 있었으며, 麗隋의 전쟁은 이 동맹세력의 盟主끼리의 싸움”이라 했지만, 이는 실증없는 추상이다. 또 隋·百濟관계로 보아도 高句麗·百濟가 與國일 수 없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시 당과는 약 30여 년간 표면상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유지하며 대립했으나<sup>25)</sup> 결국 장기간의 전쟁이 고구려·당 사이에 전개되었다. 이것은 당의 覇權主義에 의하여 고구려가 스스로 복속해 오지 않으면 정벌이 불가피하다는 일방적 결행이었다.<sup>26)</sup> 결국 寶臧王 4년(645)에 당 태종이 대병력으로 요동을 침입하였으나 홀륭하게 물리친 이래 장기전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고구려가 수·당과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 신라는 백제의 빈번한 침략을 방어하기에도 급급하였다. 이런 신라와 백제도 수·당과 교섭하여 각각 자국의 유리한 국제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수와 함께 고구려를 共伐하겠다는 일종의 濟隋軍事同盟을 맺고 軍期를 정했으나 실체는 출병하지 않았으므로 국제적 신뢰성의 상실과 국력의 허약성을 스스로 노정시킨 결과가 되었다. 이런 결과는 당과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쳐 실패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당은 삼국간의 항쟁을 화해시키려고 중재에 나서면서도 신라를 당의 변신이라고 두둔하면서 백제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백제는 당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던 것이다.<sup>27)</sup>

이때 신라는 眞平王 43년(621)에 처음으로 당에 사신을 파견한 이래 급속히 접근하는 한편 삼국의 상호항쟁을 삼국내의 세력균형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일차적 시도였다. 즉 선덕여왕 11년(642)·12년에 신라는 여제의 침공을 당에 전하며 구원을 청하기도 했지만<sup>28)</sup> 한편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청병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서 삼국의 성장과정에서 삼국관계에 의한 역사적 배경을 의식한 점과 삼국 자체내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에 실패한 신라는 오직 당과의 제휴가 불가피했고 고구려정벌에 실패한 당은 여제가 연합했다는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신라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羅唐軍事同盟이 체결될 수 있었다.

25) 申澄植, 〈三國의 對中關係〉(앞의 책), 315쪽.

26) 《舊唐書》권 61, 列傳 11, 溫大雅弟 彦博 및 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高麗 武德 7년.

27) 《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百濟 貞觀 22년.

28)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선덕여왕 12년.



비담의 난을 평정하고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했던 김춘추는 그 아들 문왕과 함께 진덕여왕 2년(648)에 당으로 가서 당 태종을 만나자 태종은,

내가 양국을 평정하면 平壤以南과 百濟土地는 다 그대 新羅에게 주어 길이 평안하게 하려 한다(《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고 말하였고, 이어 計策과 軍期를 정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곧 나당군사동맹이며 이는 신라의 단순한 청병과 당의 막연한 출사의 약속만이 아니었다. 나당 양국이 여제를 멸망시키면, 그 戰後에 있을 양국간의 領土分割約定으로서 평양 이남과 백제 全土는 신라가 영유한다는 외교적 타결이었다.<sup>29)</sup> 그러나 당의 고구려정벌계획이 貞觀 19년(선덕여왕 14년, 645)의 실패 이후부터 장기 전략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신라와의 군기를 실천하는 데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나당의 여제정벌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당은 고구려를 두고 백제를 정벌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신라는 백제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도 힘겨웠는데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선덕여왕 14년에는 요동을 공격하는 당을 도와 신라가 고구려 남경을 침공했더니 그 틈에 백제는 신라 서변의 7성을 빼앗아갔다. 또한 고구려는 당의 침공이 없는 시기를 틈타서 신라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4國이 얹혀 싸우면서 나당이 백제를 先攻한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양국의 오랜 주저가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 전략의 묘는 바로 당이 대고구려 정벌전략에서 장기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의 산물인 듯싶다.

요컨대 신라는 대당외교를 적극화하여 상호 결속하였지만, 이는 신라가 일방적으로 당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이 신라를 적극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라가 여제 양국의 위협을 받았지만, 신라에서 일차적인 통합대상으로 삼은 것은 백제였다. 따라서 당의 강적이 고구려였던 상황을 재빨리 간파한 신라는 대당외교에서 여제 양국의 침입과 위협을 거

29) 李昊榮, 〈新羅三國統一에 관한 再檢討〉(《史學志》 15, 檀國大, 1981) 참고.  
이 시기 당의 동태로 보아 김춘추가 압록강 이남의 땅을 신라가 소유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더라도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은 압록강 이북의 요동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론하면서 결론은 백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과정에서 신라는 여제가 連兵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당에게 의구심을 갖게 함으로써 당이 신라에 접근하도록 유도하여 나당군사동맹은 물론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는 외교에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백제의 패망

이미 唐 貞觀 22년(진덕여왕 2년, 648)에 나당군사동맹이 이루어졌더라도 양국의 動兵은 좀체로 쉽지 않았다. 당은 정관 19년의 고구려정벌에 실패한 이후 장기전략으로 들어갔고 고구려가 의연히 존재하는 한 백제정벌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김춘추가 태종무열왕으로 즉위(654)한 이후 律令政治를 표방하고 왕자인 文王을 中侍로,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삼아 자파의 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당의 장기전략에 따른 고구려의 대응양상을 통찰한 위에 백제를 先攻하자고 당에 제의했던 듯하다.

당에서는 고종이 즉위(649)하여 태종의 遺業을 완수하려고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열왕 6년 4월에는 백제의 잦은 침범으로 당에 「乞師」했고, 10월에는 청병에 대한 당의 응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나당이 백제를 선공하기로 약속한 시기는 언제쯤일까 하는 문제이다. 우선 나당동맹이 체결된 진덕여왕 2년(648)에는 백제의 선공이 논의되기 어려웠다면, 신라 무열왕과 당 고종이 즉위한 650년부터 654년을 그 논의의 上限으로 고려될 문제라고 본다. 여기에는 그렇게 추단한 몇 가지 단서가 있다.

신라에서 百濟吞併이 구체화되기는 무열왕 2년경이다. 김유신이 당시 백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佐平 任子를 심리적으로 교란시키기 위하여 二重間諜 租末坤을 이용했던 바, 동요하는 임자의 의중을 헤아리고 급히 백제탄병을 피했다는 것이다.<sup>30)</sup> 이런 謀議가 김유신 개인이 아니라 신라정부 차원

30) 《三國史記》 권 42, 列傳 2, 金庾信 中.

에서 획책된 일이라면, 이를 통하여 백제의 형편을 알고 당에게 백제를 선공하자고 제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수가 백제를 통하여 고구려 내정을 정탐하려 했듯이 신라는 당과 연결되어 적대국의 정보를 교환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사실 신라는 일찍부터 백제의 사정을 당에 전하여 당 태종의 백제관을 형성하였던 것인데,<sup>31)</sup> 여기서 김유신은 백제가 無道함을 왕에게 말하면서 탄병의 책략을 의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 북경의 30여 성을 앗아간 무열왕 2년(655)을 주목하여, 무열왕이 당에 구원을 요청하면서 먼저 백제를 공벌하자고 제의하여 당의 內諾을 얻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sup>32)</sup> 그런데 무열왕 3년·4년의 양년은 당의 고구려 침략이 없었고, 고구려는 보장왕 15년(656) 당의 皇太子冊封 賀使를 보냈다. 당에서는 賀魯의 亂을 맞아 顯慶 2년(657)까지 이를 진압하고 있었다. 한편 신라에서는 진덕여왕 5년(651)에 入唐한 金仁問이 무열왕 3년에 귀국하면서 王子인 文王을 입당시키는데 이는 宿衛로서 당의 황태자 책봉 축하의 의미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무열왕 3년에 문왕을 통하여 백제를 선공하자고 제의했고 당은 현경 2년 12월 蘇定方이 하로를 사로잡은 뒤 확약했을 것이다.<sup>33)</sup>

이렇게 결정된 백제 선공전략은 당의 고구려정벌 장기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었다. 왜냐하면 정관 19년(645) 이후 당은 장기전략으로 전환하고 소수병력으로 자주 요동을 침공하여 고구려가 피폐하기를 기다리면서 거의 15년간을 지속해 오는 동안 고구려는 물론 백제까지도 이러한 전쟁방식에 길들여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허를 찔러 기습적으로 감행한 작전이 곧 백제선공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경 3년·4년의 양년에 걸쳐 요동을 공격함으로써 고구려의 관심을 요동으로 집중시키는 한편, 다음해인 현경 5년에는 백제정벌을 단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31)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선덕왕 12년조 唐太宗의 말.

32) 李丙燾, 《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 1959), 507쪽.

33) 李昊榮, 《新羅의 三國統合過程 研究》(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85), 133쪽.

또 이 시기의 對唐外交를 보면 태종무열왕 원년(654) 양국 사신의 왕래, 2년의 “王遣使入唐 救援”, 6년의 “遣使入唐 乞師”가 기록되었고, 文王은 4년(657)에 唐에서 돌아와 中侍가 되었다.

이후 신라에서 唐軍의 내도를 고대하던 중 태종무열왕 7년(660; 당 고종 顯慶 5년) 3월, 당의 출병을 통보 받았다. 이때 唐軍指揮官으로,

左武衛大將軍 蘇定方; 神丘道行軍大總管  
金仁問; 神丘道行軍副大總管  
師左驍衛將軍 劉伯英  
左武衛將軍 憑土貴  
左驍衛將軍 龐孝泰

등이 水·陸 13(10)만 군을 거느리고 6월 18일 萊州(山東半島)를 출발하여 바다로 德勿島(德積島)에 도착해서 여기서 신라의 군지휘관과 만남으로써 실제 나당연합군이 형성된 셈이다.

한편 신라에서는 5월 26일 왕과 태자 法敏·金庾信·眞珠·天存 등을 장군으로 삼아 大兵을 거느리고 수도 慶州를 출발하여 6월 18일 南川停(利川)에 도착했다. 21일에 법민 등은 兵船 1백 척으로 덕물도로 나아가 당군을 맞아들이는 동시에 법민·소정방 양인은 백제정벌의 구체적 전략을 논의하였다. 결국 신라군은 7월 10일 백제 伎伐浦에서 당군과 합동하여 泗沘城(扶餘)을 공격 입성하기로 전략을 세웠던 듯하다.

주목되는 것은, 당이 신라왕을 嶠夷道行軍總管으로 임명한 것 외에 당에서 숙위하고 있었던 金仁問을 당군의 水路를 안내하는 향도역활로서 副大總管으로 임명한 듯한 것인데, 이는 신라가 藩臣國이었다는 당의 의식 표출이라 믿어진다.

법민이 소정방과 전력을 의논하고 돌아오자, 법민, 대장군 김유신, 장군 品日·欽春(欽純) 등에게 精兵 5만을 주었으며 왕은 今突城(尙州 白華山)에 住次하였고, 7월 9일 유신이 거느린 신라군은 黃山으로 진군했다. 이러한 《三國史記》의 기록대로 動兵했다면, 신라 대군이 경주에서 남천정까지 와서 이 중의 5만 정병을 뽑아 다시 남하하여 백제정벌로 들어간 것이다. 여기서 신라군의 百濟征伐 進軍路 문제도 있지만,<sup>34)</sup> 대병력이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우회

34) 池內宏은 新羅軍이 報恩·沃川을 경유하였다고 보았고, 炭峴은 忠淸南·北道道界의 고개인 오늘의 馬道嶺이라 하였다(池內宏, 〈百濟滅亡後の活動及び唐·

했는지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① 唐兵을 영접하는데 신라군의 盛勢를 보여주려는 것,<sup>35)</sup> ② 고구려군의 남하를 우려한 것,<sup>36)</sup> ③ 對백제전략으로서 백제의 防禦主力을 분산·교란시키려는 의도 등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마도 황산으로 향하는 백제진입로인 報恩 혹은 沃川에 먼저 군대를 집결시켜 놓고 여기서 왕을 비롯한 범민·김유신 등 주요 지휘관과 일부 병력만이 북상해서 남천정까지 갔다가 다시 남하하여 합류하지 않았겠나 추측된다. 따라서 위에서 보이지 않는 「新羅督軍 金文穎」과 良圖 등도 도중에 離合했을 것이다.<sup>37)</sup>

7월 9일 신라군이 황산에서 階伯의 5千決死隊를 격파했는데 이 전쟁이 백제정벌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대한 고비로 《삼국사기》는 기록했다. 계백이 먼저 험한 곳에 三營을 설치했으므로 신라군도 三道로 나누어 진격했지만 戰勢는 신라군에게 불리하여 4戰 모두 패배하고 士卒은 力竭한 형편이었다. 이때 김유신의 弟 흠순은 아들 盤屈을 출전케 해서 전사했고,<sup>38)</sup> 품일도 官昌을 출전시켜 전사했다.<sup>39)</sup> 반굴은 화랑인지 알 수 없지만 관창은 화랑으로서 勇戰하다가 전사함으로써 여타의 병사들이 분전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서 강개한 신라군의 力戰으로 大勝을 가져왔다. 이에 계백 등 대부분의 백제

羅・日關係-附說 白江及び炭峴について, 앞의 책, 213~236쪽).

鄭永鎬는 新羅軍의 進軍路程을 南川停→三年山城(報恩)→山桂里土城(沃川)→장군재(沃川)→구진배루(沃川)→郡西(沃川)→馬山(錦山)→炭峴(→伐伐浦→泗泚城)으로 추정하였다(鄭永鎬, 〈金庾信의 百濟攻擊路研究〉, 《史學志》 6, 檀國大, 1971, 61쪽).

35) 《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태종무열왕 7년.

36) 洪思俊, 〈炭峴考〉(《歷史學報》 35·36합집, 1967), 66쪽.

37) 軍期를 어겼다고 金庾信과 蘇定方 사이에 爭論이 일어난 속에 金文穎이 등장하는데,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三國史記》의 新羅本紀에는 보이고, 金庾信傳에는 기록되지 않은 점은 좀 이상하다. 良圖는 문무왕 2년(662) 唐兵에게 軍糧을 운반하고 돌아올 때 “良圖以兵八百人 泛海還國”(金庾信 中)이라 한 점으로 보아, 이때도 水軍을 지휘하여, 신라군 지휘관을 德積島에 往復시킨 海軍大將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이 양도는 金仁問傳에서 入唐해 西京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이는 本紀에서 문무왕 10년 唐의 圓獄에서 죽었다는 것과 부합된다.

38) 《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태종무열왕 7년. 이 때 흠순이 “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忠孝兩全”(《三國史記》 권 47, 列傳 7, 金令尹)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39) 《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태종무열왕 7년 및 권 47, 列傳 7, 官昌.

군을 함몰시키고 佐平 忠常과 常永 등 20여 인을 사로잡음으로써 黃山大捷을 거두었다. 병력의 다과가 반드시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5만 신라군이 5천 백제군 격파에 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따라서 7월 10일이라는 軍期를 넘기고 다음날인 7월 11일에야 신라군은 당군과의 약속장소인 기벌포에 도착하여 당군과 합류하였다. 그러나 당병은 9일에 도착했기 때문에 백제병의 저항을 받았다.<sup>40)</sup> 만일 신라군이 기일내에 도착했다면 당군은 백제병과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소정방은 기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신라독군 김문영에게 지워 그를 군문에서 斬하겠다고 문책하였다. 아마 唐將으로서 신라 지휘관을 억압하여 그 복종을 강요한 첫 조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김유신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되,

대장군은 황산의 戰役을 보지 못하고 기일을 넘긴 것을 罪하려고 하니 내가 죄없이 욕을 당할 수는 없다. 먼저 당군과 決戰하고 뒤에 백제를 깨뜨리겠다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무열왕 7년).

라고 一喝怒聲으로 장부다운 기상을 보였다. 이에 소정방의 右將 董寶亮이 “신라병이 장차 變하려 한다”고 하여 일단 무마되었다. 이것은 김유신의 율분에 동조한 신라군이 당군과 一戰不辭의 태세를 갖추었던 험악한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로 인해 신라군의 사기가 크게 양양되었고, 이후 唐將이 신라군을 업신여기지 못한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신라군이 기벌포에 이르자, 백제의 왕자(隆?)가 좌평 覺伽로 하여금 글을 당의 장수에게 보내어 退兵을 요구했지만, 7월 12일 사비성을 포위하였다. 위의 진격과정에도 나당군 사이에 누가 선봉에 서느냐를 놓고 다투다가 양군이 나란히 진격했다는 사실로 보아 신라군이 적극적으로 백제병을 攻破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7월 13일에 백제 왕자인 隆, 大佐平 千福 등이 범민 앞에 항복했다는 것도 신라군이 城下에 접근하여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1)</sup>

40)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무열왕 7년 7월 9일조에 “是日 定方與副總管金仁問等 到伎伐浦 遇百濟兵 逆擊大敗之”라 했고 11일까지는 날짜의 기록이 없다. 그러나 軍期는 7월 10일이고, 12일에는 사비성을 포위·함락시키고 있으므로 신라군이 기벌포에 도착한 것은 11일이 분명하다.

41) 그러나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20년조에서는 이들이 唐將에게

다시 熊津城으로 피난갔던 의자왕 등이 18일에 돌아와 항복함으로써 백제는 멸망한 것이다.

따라서 今突城에 주차했던 태종무열왕은 7월 29일 所夫里城에 이르러 弟 監 千福을 시켜 戰功을 고했고, 8월 2일 酒宴을 베풀어 승리를 자축하고 당병을 위로했는 바,

王과 定方 및 諸將은 堂上에 앉고 義慈王과 子 隆은 堂下에 앉아서 혹은 의자왕에게 술잔을 나르게 하니 백제 좌평 등 群臣은 슬피 울지 않는 자 없었다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무열왕 7년).

고 하여, 승리자의 당당함과 패배자의 참담한 모습을 여실히 묘사하고 있다.

비록 왕과 大臣의 일부가 항복했지만, 백제군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당군은 郎將 劉仁願에게 1만 명의 병력을 주어 사비성을 지키게 했다. 이에 신라는 왕자 仁泰, 사관 日原 등에게 7천 명의 병력을 주어 함께 주둔시켰다. 그리고 9월 3일 당군은 백제의 포로로 왕 및 태자 孝, 왕자 泰·隆·演과 大臣·壯士 등 88인과 백성 12,807인을 끌고 唐京(長安)으로 돌아갔다.

신라의 대당관계는 처음부터 평등한 입장이 아니었고 따라서 신라왕도 唐의 일개 장군으로 임명된 형편이었지만, 당은 신라의 권익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백제 본래의 5部 37郡 200城 76萬戶<sup>42)</sup>를 재편성하여 熊津·馬韓·東明·金漣·德安의 5都督府를 설치해서 州縣을 통치케 했고 백제인으로 도독·刺史·縣令을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5도독부는 웅진과 덕안을 제외하고는 계획에 그쳤다고 하나<sup>43)</sup> 백제 옛땅에 대한 당의 직접 지배는 나당 사이의 領土分割約定의 위반이었으므로 신라의 자주성과 권익을 되찾기 위해 후일 나당전쟁이 불가피했다.

사실 신라는 당 13만 군의 성원을 얻어 단시일에 백제를 패망시켰지만, 신라군은 계백군과 같은 강력한 백제군의 저항을 격파하면서 깊숙히 백제영역을 가로질러서 기벌포까지 진격했고 사비성 함락에도 앞장서서 싸웠던 것

항복했다고 기록하였다.

42) 《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百濟.

43) 李丙燾, 앞의 책, 512쪽.

이다. 이에 비하면 당군은 13만이라는 숫자적 대세로 산동반도→덕물도→기벌포까지 바다로 순항했고 겨우 사비성 함락에 진군함으로써 그 聲勢만 가지고 오히려 모든 實利를 앗아갔다. 그러나 신라는 또 하나의 강적인 고구려 정벌이 남아 있었으므로 對唐戰爭을 결단하기까지는 더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요청되었다.

그러면 백제는 왜 그렇게 쉽게 패망했을까. 여기서 백제의 패망원인을 개략하면, 첫째 백제는 6세기말부터 빈번한 전쟁을 무케도하게 펼침으로써 국력소모가 과다하였다. 둘째 王을 비롯한 백제 지배자들이 사치와 방일에 빠져 국가를 충실히 지키려는 애국심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를 수호하는 일이 곧 자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철저하지 못했던 듯하다. 셋째 그 말기에 이를수록 애국적 충신은 도태되었고 害國的 姦臣들이 득세했던 것이다. 의자왕 16년(656)에 좌평 成忠은 “王과 宮人의 淫荒 耽樂과 그칠 줄 모르는 음주”를 極諫하자 投獄으로 보상되었고, 이 성충과 興首가 炭岬와 白江(기벌포)에서 水陸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최후의 忠言마저 묵살되었다. 넷째 백제는 신라의 변경을 기습하여 신라를 괴롭히는 데 만족하고, 강력한 외적의 침공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에 소홀했던 듯하다. 따라서 나당연합군의 기습에 방어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다. 앞에서 말한 성충의 탄현·기벌포 방어전략이 의자왕 19년(660) 나당의 침공을 받은 뒤에야 다시 홍수에 의해 건의되었으나 이것이 채택되지도 않았거니와, 이미 이때는 신라군이 탄현을 넘어섰고 당군이 백강에 들어온 이후였다. 여기서 당군을 먼저 치면 신라군은 겁내어 돌아갈 것이라는 좌평 의직의 전략도 적용될 상황이 아니었다. 외적의 침입을 당하여 화급한 방어전략이 지리멸렬했다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려는 방어책에 얼마나 소홀했었는지 알 수 있다. 다섯째 백제의 外交에서 백제가 隋와 軍期를 정하여 함께 고구려를 共伐키로 약속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수를 이은 당에 있어서 백제의 외교가 不信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외교에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백제에서는 倭와 親交하여 왜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親倭는 勢가 될 수 없었다. 여섯째 당시 3국은 모두 城 中心의 防禦體制였는데 백제는 史上 유례가 없는 신라의 5만 대병을 맞아 일시에 방어할 병력과 기동력



이 없었다고 판단된다.<sup>44)</sup>

요컨대 신라는 국제관계 변화의 물결을 타고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무열왕 7년(660) 숙적인 백제를 패망시켰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할양 받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당동맹의 와해와 나당전쟁의 잠재적 도화선이 되었다.

## (2) 백제국 부흥운동의 진압

백제 사비성의 외곽지대에서 나당군에게 저항하는 백제군을 진압하지 않고 당의 주력부대의 대부분은 顯慶 5년(의자왕 30년 ; 660) 9월 3일 바다를 통하여 唐京 장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당군이 급히 철수한 이유는 그들의 사전 전략이었을 것이다. 즉 첫째 당의 의도는 처음부터 대군의 성세만 빌려주고 실체는 신라군으로 하여금 백제를 정벌케 할 목적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당군의 참전은 사비성 함락에 그쳤고 이후의 백제군 진압에는 신라군을 동원하려 했다. 둘째 당군은 먼 海道에 지속적인 軍糧供給도 어려웠음을 감안했을 것이다. 셋째 백제정벌의 餘勢를 몰아 고구려를 급습하려는 전략이 있었던 듯하다. 현경 5년 12월 소정방이 契苾何力·劉伯英·程振名 등과 고구려를 침략한 사실로 알 수 있다. 결국 당은 직접 백제를 지배할 목적으로 사비성에 留鎮唐兵 1만 명을 남기고 백제군은 신라군에게 진압시키려는 철저한 당 중심의 정책만을 펴갔다.

백제군은 당군이 떠나기 전인 8월 2일 사비성의 南岑과 貞峴에서 저항했고, 佐平 正武는 豆尸原嶽(忠南 靑陽郡 定山面)에 주둔하면서 나당인을 抄掠하였다. 또 8월 26일에는 신라군이 任存城(大興)의 大柵을 공격하였으나 백제군이 많고 지세가 험하여 이기지 못하고 다만 그 小柵만을 공파했다는 것이다.<sup>45)</sup> 바로 이 임존성은 문무왕 3년(663)까지 백제국 부흥군의 본거지가 되었고 黑齒常之·沙吒相如·遲受信 등의 지휘하에<sup>46)</sup> 3만 부흥군을 거느리고 2백여 성을 탈환하는 등 자못 그 형세가 대단해서 소정방군도 이들에게 패배

44) 李昊榮, 〈百濟 敗亡原因論〉(《朴性鳳教授回甲紀念論叢》, 1987), 151쪽 참조.

45)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태종무열왕 7년.

46) 《新唐書》권 108, 列傳 33, 劉仁軌.

한 채 돌아갔던 것이다.<sup>47)</sup>

또 한편 백제 遺臣으로 武王의 從子인 福信과 중 道琛은 周留城(韓山?)에 웅거하면서 의자왕의 왕자로 倭國에 인질로 가 있던 扶餘豐을 맞아 백제왕으로 삼았더니 西北部가 모두 그들에게 호응하였다는 것이다.<sup>48)</sup> 이 주류성에는 부여풍 외에 왕자 扶餘忠勝·扶餘忠志 등도 부흥군을 지휘하고 있었다.<sup>49)</sup> 이는 이미 패망한 백제왕실의 왕통을 다시 계승하여 부흥군의 지주를 삼고 백제유민을 귀일시키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이 백제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보다 강력한 항전기반을 구축했던 것인데, 이런 주류성·임존성의 부흥군 세력은 서로 犄角之勢로 호응하였다.

이 같은 부흥군은 무열왕 7년(660) 9월 23일부터 대거 진출하여 사비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것은 부흥군이 단순히 포로가 되었거나 항복한 백제인을 구출할 목적만이 아니라 사비성 탈환을 위한 공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50)</sup> 이때 유인원 휘하의 당·신라병이 응전하여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신라에 원병을 요청한 듯하다. 따라서 무열왕은 직접 태자 법민과 諸軍을 거느리고 그 해 10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1개월간 대대적인 백제국 부흥군 진압에 나섰다. 이에 따른 논공행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才質에 따른 백제인의 임용이다. 이런 조치는 백제인들을 흡수 융합하려는 懷柔政策으로 믿어진다. 더욱이 함락한 尙禮城에 「官守」를 설치했다는 것은 신라가 신라병을 留守케 했다고 보인다. 이는 당이 백제를 지배하더라도 그 지배질서가 확립되지 못했고 백제국 부흥군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더욱 방기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지역을 신라에서도 ‘官守’하지 않으면 부흥군 진압의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지배를 둘러싸고 나당 사이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당시에 있어서 관수가 분쟁의 도화선이 아닐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백제에 대한 지배권은 당이 행사하면서 신라는 그 당을 도와 攻取地域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二重苦를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후 나당간의 분쟁으로 보

47) 《舊唐書》 권 109, 列傳 59, 黑齒常之.

48) 《三國史記》 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20년.

49) 《新唐書》 권 108, 列傳 33, 劉仁軌.

50) 《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무열왕 7년조에는 “謀略生降人”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아 이 신라병의 留守地域은 실제 신라가 지배했던 것이며 당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미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무렵 당은 左衛郎將 王文度を 熊津都督으로 임명해 왔으나 무열왕 7년(660) 9월 28일 신라 三年山城에서 갑자기 죽었으므로 다시 檢校帶方州刺史라는 직함을 가진 劉仁軌가 부임하여 신라군의 도움으로 사비성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었다. 대개 이 기간은 무열왕 7년(660)말·8년초로서 사비성의 당병은 신라로부터 공급받던 糧道가 끊어지고 1천 명의 당병이 부흥군에게 섬멸당하기도 하였다.<sup>51)</sup>

이렇게 백제국 부흥군의 사비성 공격이 치열하자 무열왕 8년 2월 왕은 이찬 품일을 大幢將軍, 迺滄 文王·大阿滄 良圖·阿滄 忠常을 大幢副將軍으로 삼고, 잡찬 文忠을 上州將軍으로, 아찬 眞王을 副將으로, 아찬 義服을 下州將軍으로, 武劔·旭川 등을 南川大監으로, 文品을 署幢將軍으로, 義光을 郎幢將軍으로 삼아 당병을 구원케 하였다. 3월 5일에는 品日軍이 豆良尹城(錦山郡富利面)에서 백제 부흥군에게 패배했고 12일에는 古沙比城(臨陂)에서 豆良尹城을 한달 6일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4월 19일에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下州軍은 賓骨壤(古阜 동쪽)에서 부흥군과 싸워 많은 兵器를 잃었다. 왕은 大軍의 敗報를 듣고 金純·眞欽·天存·竹旨 장군으로 增援했던 바, 加尸兮津(高靈 加耶川)에 이르러 대군이 加召川(居昌의 加川)에 후퇴했다는 말을 듣고 증원군도 돌아왔던 것이다.

한편 백제국 부흥군에서는 더욱 사기가 오른듯, 도침은 領軍將軍, 복신은 霜岑將軍이라 하고, 使者를 유인케에게 보내어 말하되, 당이 백제인의 老少를 죽인 후 백제국을 신라에게 넘겨준다고 하니 죽음으로써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sup>52)</sup> 이에 인케는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신라와 함께 진압할 것을 당 고종에게 청하는 것을 보면 역시 나당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신라군이 부흥군에게 계속 패하는 것은 무열왕말에서 문무왕초라는 전환기에 귀족들의 해이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신라군의 소극적 대응이 더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문무왕 원년(661) 당

51) 《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52) 《三國史記》 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龍朔 원년.

의 고구려정벌에 신라군의 호응을 요청받아 문무왕이 직접 군대를 통솔하여 진군하던 중, 留鎮唐兵의 요청에 따라 백제국 부흥군을 甕山城(大德郡 懷德面 鷄足山城)·雨述城(대덕군 회덕면)에서 격파하고 항복한 達率 助服은 級浪에 古 陲耶郡 太守로, 恩率 波加는 급찬에 田宅·衣物을 주었다.

이런 속에 문무왕 2년초에는 평양 부근에서 敗戰과 饑寒에 떠는 소정방군에게 군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라는 대병력과 물량을 동원하여 運糧을 왕복하면서 고구려군과도 싸워야 했다. 이때 백제에 臣屬했던 耽羅國主가 투항해 오고 백제평정을 자축하는 잔치를 배설한 점으로 보아 신라측에서는 백제국 부흥군의 저항을 지극히 경시했던 듯하다. 문무왕 2년(662) 8월, 신라는 19장군의 대병력을 동원해서 內斯只城(儒城)을 討破했고, 稱病하며 國事に 무심하다는 이유로 大幢總管 眞珠와 南川州總管 眞欽 및 그 一族을 죽임으로써 문무왕의 새 체제를 정립하는 동시에 이미 안일로 흐르기 시작한 일부 귀족들에게 一罰百戒로 肅正했던 것이라 보인다. 이렇게 해서 문무왕 3년부터 다시 부흥군 진압작전이 크게 진행되어 欽純·天存의 군대가 居列城(居昌)을 攻取하여 7백 급을 참하고 居勿城과 沙平城을 함락시켰으며 德安城(恩津)을 쳐서 1천 7백 급을 참하였다. 이렇게 보면 신라군은 사비성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외곽지대의 부흥군 진압에 주력했고, 사비성은 당병에게 맡기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金仁泰의 7천 병력이 유진당병을 돕고 있었다.

한편 사비성에서는 끈질긴 복신 등의 부흥군 공격을 받아 유인원 등은 孤立無援으로 포위되었는데 유인케가 신라병을 이끌고 복신 등이 점거한 眞峴城을 점령함으로써 비로소 신라 運糧의 길이 통했다는 것이다.<sup>53)</sup> 당병을 이

53) 《新唐書》권 108, 列傳 33, 劉仁軌 및 《資治通鑑》권 200, 唐紀 16, 高宗 上之下 龍朔 2년. 위의 《資治通鑑》에서는 “初仁願·仁軌等屯熊津城”이라 했고 그 注에 “考異曰 去歲道琛·福信圍仁願於百濟府城 今云尚在熊津城 或者共是一城 不則圍解之後 徙屯熊城耳”라 하여 혼동된다. 이것만으로는 사비성을 백제부흥군이 상당기간 奪還하지 않았나도 의심된다. 그런데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武烈王 7년조에서 “九月三日 郎將劉仁願以兵一萬人 留鎮泗沘城 王子仁泰 與沙浪日原級浪吉那 以七千兵 副之”라 하고,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조 王의 答薛仁貴書에는 “同鎮熊津”이라 하였고 “圍逼府城 熊津請兵”, “熊津漢兵一千”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는 9월 3일조의 사비성에서 당병과 신라

같은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강렬한 백제국 부흥군 내부에서는 이미 문무왕 원년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병력을 앗아 임존성으로 들어가 전횡했고, 그 이듬해에는 부여풍이 다시 복신을 살해함으로써<sup>54)</sup> 그들 상호불신이 번지는 속에 부여풍과 흑치상지가 지도적 위치를 확보했으나 이런 내분은 파국을 자초한 결과가 되었다.

또 유인원이 唐에 더 많은 군대를 요청하자, 문무왕 3년(663) 右衛將軍 孫仁師가 7천 병력을 이끌고 덕물도를 거쳐 웅진부성으로 들어왔다. 손인사는 杜奭과 웅진도독으로 임명된 夫餘隆을 대동했는데 이는 당병은 물론 신라에도 督戰의 새 기운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문무왕이 김유신 등 28(30)將軍을 거느리고 부흥군 진압에 나섰다.

유인케는 두상·부여웅을 별장으로 삼아 손인사·유인원의 당병 및 신라왕이 거느린 제군과 합세하여 먼저 豆良尹城과 周留城을 함락시켰다. 이에 扶餘豐은 고구려로 망명했고 왕자 扶餘忠勝·扶餘忠志는 무리들과 항복했지만 지수신은 임존성을 고수했다. 이 주류성이 함락되자 다른 성은 저절로 무너졌다. 한편 유인케의 수군은 白江口에서 백제부흥군을 돕는 倭兵船과 회전하여 4백여 척을 불살랐다. 이 전투로 부흥군의 핵심세력이 모두 무너져 사타상여·흑치상지도 항복했다. 유인케는 사타상여·흑치상지 등 降將들을 앞세워 임존성을 공파하자 지수신도 고구려로 망명하였다.<sup>55)</sup>

백제국 부흥군 진압작전을 보면 신라군의 단독진압, 당병 단독진압, 나당병의 연합작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나당군을 분리하여 분석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金仁泰 7천 병은 언제나 당병과 행동을 같이 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당병이 본토의 원병까지 동원했더라도 그 主力은 신라군이었으며 신라왕이 직접 대병력으로 참전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유인케의 武功으로 기록된 주류성전투도 신라의 驍騎가 선봉에 서서 격파했던 것이다.<sup>56)</sup> 백제

병 7천이 끝까지 주둔했다고 보고, 백제부흥군이 포위한 ‘府城’도 사비성으로 보았다.

54)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龍朔 원년(661) 및 2년조에 의함. 권 6, 新羅本紀 6에는 福信 등의 初起를 문무왕 3년(663)조에 몰아서 언급하여 내부 변화의 연대가 무시되었다.

55) 《新唐書》권 108, 열전 33, 劉仁軌傳이 이 부분의 중요 자료이다.

殘衆이 泗泚山城(扶蘇山城)에서 항거했다는 문무왕 4년(664) 3월의 기록은 있으나 부흥군의 대부분은 문무왕 3년(663)까지 진압되었다.

요컨대 《삼국사기》가 많은 독자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위 부분은 中國史書에 근거한 기록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연대와 사건을 정확히 일치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 판단도 쉽지 않다. 그러나 신라는 4년간 엄청난 국력으로 백제국 부흥군 진압에 절대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留鎮唐兵의 요청과 지휘에 의하여 당을 돕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라는 고구려를 패망시키지 못한 시점에서, 당은 백제 전 지역을 자의대로 지배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나당 서로가 불가피했던 것이 곧 백제국 부흥군 진압과정의 시기였다. 이는 양국의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신라는 대가없는 전쟁으로 당에게 굴종을 강요당했던 것이다.

### (3) 새로운 나제관계

처음부터 나당관계는 불평등해서 신라가 당의 「번신」임이 강조되더니, 백제정벌에는 태종무열왕을 嶠夷道行軍總管으로 임명하여 신라왕이 당군의 일개 지휘군인 것처럼 당이 일방적으로 쳐우했다. 다시 백제국 부흥군을 진압하던 마지막 단계인 문무왕 3년(663) 4월에는 신라국을 「鷄林都督府」로, 신라왕을 「鷄林州大都督」으로 당 황제가 임명했다. 백제 故地에 熊津都督府를 두었으므로 신라는 패망한 백제와 하향식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아무리 형식적이었다 하더라도 신라국은 당이 통치하는 일개 지방으로 편속된 것이며, 왕도 일개 지방장관으로 전락된 것이었다. 이런 조처는 당의 강압적 霸權主義 산물이었고 신라가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 따라서 만약 백제 지역에서 그 부흥군을 진압키 위해 당병이 있었다면 진압한 뒤에는 당병의 철수와 동시에 백제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신라에게 양도해야 마땅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領土分割約定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국 부흥군을 거의 진압할 무렵인 문무왕 3년부터 당의 백제지배정책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 해 손인사가 別帥로 대동한 杜爽(杜大夫)과

56) 《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조의 答薛仁貴書 龍朔 3년.

부여융이 있는 바, 나당군이 주류성을 함락하고 임존성은 공과하지 못한 시점에 두상은 백제국 부흥군을 평정한 뒤 웅진도독부와 신라가 和親할 것을 요구했다. 신라에서는 아직 백제를 평정하지 못했고 또 백제는 간사하고反覆이 심하여 이제 會盟하더라도 後患이 두렵다는 이유로 停盟을 요청했다.<sup>57)</sup> 그런데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백제유민을 무마케 하며 임존성을 공과한 뒤 신라에게 화친을 강요했다. 이미 유인궤는 무열왕 7년(660)말경 고구려를 멸하려던 먼저 백제를 주멸하여 留兵鎮守하여 백제를 心腹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제 당의 계획된 海東支配政策의 일환으로 구현되었다.

문무왕 4년 2월, 角干 김인문과 이찬 천존이 唐使 유인원, 웅진도독 부여융과 더불어 일차 회맹을 가졌는데, 이는 본격적 誓盟을 하기 위한 예비회담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문무왕 5년 8월 就利山(公州 鷲尾山)에서 문무왕과 부여융 사이에 화친할 것을 서맹하였다. 이때 盟文은 유인궤가 짓고 유인원이 서맹을 권유하였다. 그 맹문의 내용은 나제 양국이 형제처럼 結好和親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을 「金書鐵券」으로 제작하여 각각 宗廟에 두고 자손만대까지 이를 犯하지 말라는 것이었다.<sup>58)</sup> 이미 나당에 의하여 패망된 백제가 신라와 대등한 국가로 부상되었다면 이는 엄청난 모순이었다. 더욱이 부여융은 앞잡이에 불과했고 파견된 당의 관리와 당병이 실권을 가졌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당이 신라에 대해 패권적 우위성을 과시한 이상, 웅진도독부가 계림도독부인 신라와 평등하더라도 오히려 웅진이 우월한 위치에 설 가능성을 내포했고, 회맹에서 보는 것처럼 당의 파견관리는 신라에 강압과 간섭을 했던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신라는 아직 고구려를 패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당의 처사에 불만과 적개심을 가졌더라도 노골적 반발은 보일 수 없는 처지였던 것 같다.

그러면 문무왕 5년 서맹 당시 당이 지배한 百濟故地の 범위는 대강 어느 정도였을까. 《三國史記》地理志 末尾에 기록된 “都督府一 十三縣” 이하는 1도독부 7주 51현이며 이것은 대충 충청남도 南半 및 全羅南·北道 전체에

57) 위와 같음.

58) 《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5년.

《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百濟.

해당하고 백제 패망 당시의 영역에 버금간다는 것이다.<sup>59)</sup> 이렇게 볼 때 신라가 백제국 부흥군 진압과정에서 일부 백제 토지와 유민을 흡수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백제영역은 당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지배영역에 대한 나당간의 분쟁이 야기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문무왕 8년(668)의 사실로서 신라는 會盟處에서 백제가 ‘移封易標’한다면 境界에 대한 분쟁을 토로하고 토지와 노비를 침탈하여 신라 백성을 유인해서 내지에 숨겼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신라의 거짓이라고 보기도 하였으나, 다시 나제가 양립되고 웅진의 당 관리가 우위에 있던 당시는 가능했다고 믿는다.

한편 당이 신라를 정벌하리라는 소문과 아울러 新羅內에는 “신라의 兵器를 盜取하여 1州의 땅을 습격하려는” 漢城都督 朴都儒와 같은 親熊津分子가 생겨나서 실로 어지러운 삼각관계를 볼 수 있다. 문무왕 10년 6월의 나제 사이의 인질교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상호불신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다. 그 해 7월, 나제간의 境界劃定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는데, 이 때 신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었다.

入朝使 金欽純(欽春) 등이 돌아와 장차 境界를 획정하려 할새 地圖에 의하여 披檢하면 百濟舊地를 통히 割還케 하라는 것이었다. … 3·4년간에 한번 주고 한번 뺏으니 신라의 백성은 모두 本望을 잃고 (아래와 같이) 말한다. “나제는 累代의 원수인데 지금 백제의 정형을 보면 따로 一國을 자립할 모양이니 百年 후에는 (新羅의) 자손이 반드시 吞滅될 것이다. 신라가 이미 國家(唐)의 州郡이 되어 양국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이니 원컨대 一家되어 후환이 없도록 해달라” 하였다. 去年 9월에 이 사실을 具錄하여 使臣을 보내어 奏聞케 하였으나 漂流되어 도로 오게 되었고 또 다시 사신을 보냈으나 역시 도달치 못하였다. … 百濟가 (없는 사실을) 꾸미어 唐에 말하되 新羅가 배반한다 하였다(《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이것은 문무왕이 薛仁貴에게 답한 일부로서, 백제가 당을 배경으로 신라를 참소·위협해서 신라가 분노를 토로했던 것인데, 당이 신라측에 전부 반환하라 한 백제 옛 지역은 地圖에 의한 무열왕 7년(660) 이전의 백제영토를 의미

59) 池內宏,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앞의 책), 178~185쪽.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신라군이 백제국 부흥군을 진압하고 「官守」한 그 지역을 반환하라는 것이며, 신라는 이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보면 신라가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와 같은 백제의 영토와 유민문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제기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기록에는 문무왕 9년에 “또 欽純 角干과 良圖 波珍湊을 당에 보내어 사죄하였다”고 했으므로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遣使했음을 알 수 있다.

高宗은 欽純의 還國을 허락하였다. 良圖는 留囚하여 끝내 圓獄에서 죽었다. 왕이 백제토지와 유민을 擅取하므로 皇帝가 責怒하여 使臣을 유수했던 것이다(《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10년).

라고 하였다. 문무왕 9년(669)부터 나타나는 謝罪使는 첫째가 일부 백제의 영토와 유민을 신라가 取한데 대한 당의 힐책 때문임을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다. 둘째는 나·당전쟁을 지속하면서 당에 대한 신라의 무마책으로서의 사죄사였다. 여기는 첫째 조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제 사이의 경계확정 문제는 문무왕 5년 회맹 전후부터 대두되었으며 이런 강역문제는 상호간에 좀더 확장된 영토지배를 위한 분쟁이라 하겠다. 이런 면에서 신라는 방금의 나·제관계에서 “이미 국가(당)의 州郡이 되어(되었을 망정) 양국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이니 원컨대 一家되어 후환이 없도록 해달라”고 역설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것은 주체적 신라 입장에서 간절히 소망한 삼국의 통합논리이기도 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신라국을 대신한 사신인 金良圖는 당의 옥중에서 殉職해야 했다.

요컨대 무열왕 7년부터 신라가 백제국 부흥군을 진압하여 일부지역을 관수에 의해 지배하였고 유민도 항복과 노획으로 흡수했으나, 문무왕 5년 회맹과 境界劃定 이후부터는 나당 사이에 지배 영역에 대한 분규가 격화되어 문무왕 10년경에는 더욱 이것이 심화되었다. 바로 이런 부차적 분규는 고구려를 패망시키면서 신라의 근본적 불만을 자극하여 당에의 정면적 대결로 신라는 응분의 대가를 찾겠다고 일어서게 되었다.

#### 4) 고구려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고구려의 패망

고구려는 對隋戰爭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수를 멸망으로 몰아넣었지만, 이어 일어난 당과의 대결에서는 고구려가 패망하였다. 고구려가 嬰陽王 9년(598) 수의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한 이후 강한 독자성을 표방하며 수와의 정면대결까지 불사한 태도는 당과도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당과의 전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의 수·당과의 전쟁과정은 이미 소상히 밝혔으므로<sup>60)</sup> 여기서는 당이 고구려를 패망시키는 과정에서 신라가 당의 군사동맹국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겠다. 이러한 이유는 특히 신라의 입장에서 자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나·당동맹이 와해될 수밖에 없고 신라의 대당전쟁이 불가피한 또 하나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이 성립된 武德 원년(618)부터 高祖를 지나 太宗 18년(644)까지 27년 동안 당은 고구려에 대하여 표면상 평화정책을 구사하면서 道教傳播를 통한 문화적 羈縻政策으로 고구려의 복속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구려도 이런 당의 대고구려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화평을 지속하려고 했던 듯하다. 그것은 당이 전한 도교를 淵蓋蘇文도 적극 수용하여 자기의 獨裁權力을 유지하는데 사상적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는 一說이 있는 까닭이다.<sup>61)</sup>

그러나 唐朝에서는 이미 고조 초기부터 고구려가 抗禮하면 四夷를 복속시킬 수 없다는 데 합의함으로써<sup>62)</sup> 당의 패권주의에 의하여 당 중심의 국제질서를 재편성해 가려고 하였다. 이런 면에서 수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sup>63)</sup> 따라서 당의 입장에서 고구려가 스스로 굴복하여 복속해 오지 않으

60) 《한국사》 5(국사편찬위원회, 1996), 109~138쪽 참조.

61) 李乃沃,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教〉(《歷史學報》 99·100합집, 1982) 참조.

62) 《舊唐書》 권 61, 列傳 11, 溫大雅·彥博.

63) 《舊唐書》 권 63, 列傳 13, 裴矩.

《三國史記》 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18년.

면 강제로 굴복시켜야 했고, 그것이 회유에 의한 부드러운 방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戰爭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는 수에 稱臣하다가 끝내 隋 煬帝를 拒逆”했으므로<sup>64)</sup> 사실상 전쟁의 카드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까닭에 武德 9년(626)에 당이 朱子奢를 내세워 三國의 화평을 仲裁하면서 번신인 신라를 두둔하는 입장이었고, 貞觀 15년(641)의 唐使 職方郎中 陳大德이 고구려의 지형과 내정을 살피어 전략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구려에서는 수대의 포로교환(榮留王 5년, 622), 죽은 병사의 해골 매장, 수에 대한 戰勝塔인 京觀을 헐어버리는(영류왕 14년) 등 당의 요구에 부응하였고 당이 진파하는 도교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서도 전쟁만을 피하여 당과 화평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관 14년에는 世子 桓權을 入唐시켰고 寶藏王 3년(644) 연개소문이 당에 白金을 보내는 한편 숙위 50명을 보내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으나 거절되었다. 이런 한편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부여성에서 卑沙城까지 축조함으로써(영류왕 4년)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고구려의 외교적 강경책이 대당전쟁을 초래한 것만은 아니었다. 고구려는 그 독자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의 화평을 가장한 문화적 기미정책에 부응·굴종하면서까지 오히려 양국간의 전쟁을 피하고자 외교적 타결을 다했다고 보인다. 당은 연개소문의 쿠데타로 영류왕을 죽이고 국정을 오로지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고구려 침공을 서둘렀다. 또 여기는 신라의 入唐路를 차단한다는 이유도 있으나 고구려의 내란을 틈탄 당의 침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구려는 그 독자성을 유지하고 연개소문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弑君을 강조하는 당에게 대립·항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의 도전에 고구려의 응전은 너무나 불가피했다.

당의 고구려 침공은 초기(645~646)·중기(647~666)·말기(667~668)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貞觀 19년(보장왕 4년, 645) 2월부터 당 태종이 수륙 15만 이

64) 《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高麗 武德 7년.

상의 대병력을 거느리고 요동을 침공하였다. 그리하여 요동지방의 城 대부분이 함락되고 고구려 원병 15만을 거느린 高延壽·高惠眞도 패배하여 많은 병력과 군량·병기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오직 新城과 楊(梁)萬春이 城主였다는 安市城에서 끝까지 당병을 방어하였다. 9월에 접어들면서 遼左는 寒氣가 닥치고 軍糧이 다하여 당 태종은 소득없이 退歸하였다. 한편 당은 신라·백제에도 출병을 요청하였지만, 백제는 출병하지 않았고, 신라만은 3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 남쪽 水谷城을 공격하였다. 이것으로써 신라는 당의 변신이며 동맹국임을 분명히 표시하였다.

이 정관 19년의 실패로 당은 정관 21년부터 高句麗征伐 長期戰略으로 선회하였다. 즉 자주 小部隊를 보내어 교대로 요동지방을 侵擾해서 피곤케 하면 요동이 황폐화하고 인심이 고구려로부터 떠나서 鴨綠江 이북은 싸우지 않고도 취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결행하였다.<sup>65)</sup> 그리하여 정관 19년부터 乾封 원년(보장왕 25년, 666)까지는 쉴 새 없이 요동을 침입했고 이것이 관례처럼 되어 고구려는 방어에 치중하였다.

바로 당의 이 장기전략의 틈바구니에서 신라는 眞德女王 2년(648) 나당군사동맹을 더욱 확실히 체결하고 당에 백제의 선공을 제의하여 무열왕 3년(656)경에 합의됨으로써 나당연합군에 의한 백제멸망이 가능했다. 이렇게 되자 신라는 더욱 많은 부담을 안아야 했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제국 부흥운동을 진압하고 실체도 없는 백제와 형제같이 화친할 것을 웅진도독과 회맹해야 하였다. 이런 한편 4년간을 留鎮唐兵 1만 명의 식량·의복까지 제공해야 했다. 문무왕 원년(661) 6월에는 당에 숙위하고 있던 金仁問·儒敦이 귀국하여, 이미 35軍을 동원해서 당이 고구려를 침공하고 있었는데, 이에 ‘舉兵相應’할 것을 요청했다. 이때 신라는 김유신 등 9장군으로 편성된 대병력을 왕이 직접 거느리고 북진하다가 甕山城·雨述城의 백제국 부흥군을 진압한 것으로 끝맺었다. 여기에 다시 신라는 군량을 수송하라는 당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문무왕 2년(662) 정월 김유신·김인문·김양도 등 9장군이 수레 2천여 량에 쌀 4천 석·벼 2만 2천 석을 싣고 平壤 근처에 가서 소정방에게

65) 《三國史記》권 22, 高句麗本紀 10, 보장왕 6년.

전하였다. 특별히 소정방 개인에게는 銀 5천 7백 分과 細布 30疋・頭髮 30兩・牛黃 19량을 증여하였다. 人馬가 凍死하는 추위 속에 고구려군과 싸우면서 왕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김양도는 군사 800명을 거느리고 海上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의 水陸軍이 나란히 북상했을 것으로 보인다.<sup>66)</sup>

그런데 신라 문무왕 4년 7월에는 김인문・품일 등이 一善・漢山州兵을 거느리고 웅진의 당병과 더불어 고구려 突沙城을 攻滅하였다는 것이다. 이 해에는 당의 고구려 침공도 없었으므로 상응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해 2월에 신라와 부여가 회맹하면서 다시 고구려 南京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수비체제를 교란시키려는 나당의 책략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더욱 궁금한 것은 이 돌아성을 나당의 어느 쪽에서 留守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신라에서 官守했을 것이다. 이후 문무왕 6년 2월에는 입당하여 숙위하고 있던 天存의 아들 漢林과 庾信의 아들 三光을 통하여 고구려정벌을 위해 청병했다는 것이다. 이에는 12월에 투항한 淵淨土를 통해서 莫離支 연개소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았겠지만, 그 이전인 문무왕 5년말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정벌을 요청한 것이 아닐까 본다.<sup>67)</sup>

당에서는 乾封 원년(666)년 6월에 男生의 망명에 따라 급히 龐同善・高侃 등을 보내어 요동을 침공하였고, 그 이듬해 7월에는 당 고종의 칙령으로 知鏡(문무왕의 5弟)・愷元(문무왕의 6제)을 장군으로 삼아 요동의 전쟁에 참여케 하였다. 또 유인원・김인태軍은 卑列道로 진군케 했고 신라의 병력은 多谷・海谷의 二道を 따라 평양으로 모이게 하였다.<sup>68)</sup> 이에 문무왕은 김유신 등

66) 《三國史記》6, 新羅本紀 6, 문무왕 2년조와 권 42, 列傳 2, 金庾信 中은 大同小異하다. 김유신전에는 문무왕 원년 12월 10일에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新羅本紀에는 문무왕 2년 정월 출발→정월 18일 風樹村→정월 23일 七重河(臨津江)→蒜壤→梨峴→2월 1일 獐塞(黃海道 遂安)→2월 6일 楊陝에서 군량과 선물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

67) 《三國史記》・《新・舊唐書》・《資治通鑑》은 연개소문의 卒年이 666년으로 되어 있으나, 男生의 墓誌를 통하여 665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李丙晝, 《譯註三國史記》, 341쪽).

68) 池內宏, 〈唐の高宗の高句麗討滅の役と卑列道・多谷道の稱〉(앞의 책), 262~263 쪽에서 三道의 추정은 다음과 같다.

①卑列道(安邊): 德源-阿虎飛嶺-陽德-成川-江東-平壤

30장군과 병력을 거느리고 경주를 출발하여 9월에 漢城停(廣州)으로 와서 唐將 李勣을 기다렸다. 10월 2일 이적이 평양성 북쪽 200리에 도착하여 余同兮村主 大奈麻 江深에게 契丹 騎兵 80여 명을 거느리게 해서 阿珍舍城(江原道 安峽)을 지나 漢城에 이르러 편지로 兵期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11월 11일 신라군이 獐塞(遂安)에 이르러서 이적이 철군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다시 이해 12월 유인원이 唐帝의 칙명을 전하고 문무왕에게 大將軍의 旌節(旗)을 주면서 高句麗 遠征을 협력하라는 것이었다. 또 總章 원년(문무왕 8년, 668) 6월 12일에는 유인제가 숙위하던 金三光과 함께 黨項城에 도착하여 作戰의 약속을 마치고 유인제는 泉岡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당 사이의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동안 당병은 이미 요동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 근처까지 육박하였다. 6월 21일 신라는 김유신을 대당총관으로 삼아 30여 장군의 20만<sup>69)</sup> 대병력을 이끌고 북진해서 남하한 당병과 연합한 후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결국 고구려는 寶臧王 27년(668) 9월 21일 평양성이 함락됨으로써 기록상 시조 東明王으로부터 28대 705년 만에 폐망하였다.

이에 신라군은 蛇水에서 蕃漢諸軍과 연합했는데 고구려군이 출전하므로 오직 신라군이 선봉에 서서 대파했으며 이적은 신라 驍騎 500명을 취하여 먼저 入城함으로써 평양성을 격파했다고 한다.<sup>70)</sup> 이러한 신라군의 전과는 문무왕 8년 10월 22일의 논공행상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혁혁한 전공자들은 下級將校나 지방출신인 바,<sup>71)</sup> 이는 실전에서 각 소부대의 지휘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점과 동시 귀족장군들의 臨戰態度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②多谷道(大谷道)：開城－平山(大谷城)－瑞興－黃州－平壤

③海谷道(水谷道)：朔寧－新溪(水谷城)－遂安－祥原－平壤

69) 《三國史記》 권 44, 列傳 4, 金仁問전에 20萬을 출동했다는 기록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서 2만 명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70) 《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조 答薛仁貴書.

71) 申澄植, 《三國史記研究》(一潮閣, 1981), 50쪽 〈표〉도 여기서 적출하였다.

〈표 3〉 문무왕 8년 평양전의 논공행상

전 투 지	관 직	인 명	공 적	승진·포상
蛇川戰	大幢小少監	本 得		一吉浪 租 1,000石
	南漢主少監	金相京	戰死	一吉浪(追贈) 租 1,000石
平壤城 內戰	漢山州少監	朴京漢	平壤軍主 殺害	" "
平壤城 大門戰	黑嶽令	宣 極		" "
平壤 軍營戰	誓幢幢主	金遁山		沙浪 租 700石
平壤 北門戰	南漢山軍師	山 渠		述干 栗 1,000石
平壤 南橋戰	斧壤人	仇 杞		" 栗 700石
平壤 小城戰	比列忽假軍師	世 活		高干 栗 500石

아무튼 신라는 선덕여왕 14년(645) 이래 당의 요동 침공에 부응하여 대병을 대기시키고, 出動의 헛걸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선덕여왕 14년엔 고구려 남경을 공격했고, 무열왕 7년(660)에는 백제를 패망시켰으며, 문무왕 2년(662)초에는 전쟁보다 어려운 運糧으로 평양 부근까지 적진을 뚫고 왕복했다. 이는 곧 백제국 부흥군의 진압에 이어 평양성 함락에 신라군이 선봉의 역할을 아낌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평양에 安東都護府를 설치하여 설인귀에게 2만 당병으로 유진케 함으로써 신라는 다시 대가없이 물러서야 했다.

## (2) 고구려국 부흥운동

고구려가 패망한 보장왕 27년(668) 전후로 당에 망명한 자와 포로·강제로 이치된 고구려 유민은 엄청난 숫자였다. 20만 명을 포로해 간데 이어 평양의 安東都護인 설인귀가 總章 2년(669) 4월에 38,200戶를 수륙 양로로 내지에 옮기고 고구려에는 빈약자만 두어 안동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고구려민으로 離叛者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72)</sup> 따라서 당의 강제 徙民은 평양 부근의 부강자를 抽戶함으로써 抗唐勢力을 제거키 위한 수단이었다.<sup>73)</sup> 이러한 당의 강제 사민은 옛 고구려 領內의 고구려인에게 더욱 충격과

72) 《資治通鑑》권 201, 唐紀 17, 總章 2년(669).

73) 李丙燾, 〈高句麗 一部遺民에 대한 唐의 抽戶政策〉(《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458쪽.

동요를 주었고 그것이 劍牟岑의 부흥운동으로 표출되었다는 견해도 있다.<sup>74)</sup>

그러나 백제가 패망하자 부흥군들이 사비성의 외곽지대에서 여전히 항쟁 하던 백제군을 주축으로 모여든 유민을 조직하여 백제국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것처럼, 고구려국 부흥운동도 본래부터의 고구려군이 평양의 외곽지대에 산재하면서 일으킨 對唐抗戰의 연속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인들의 부흥운동은 신라의 대당전쟁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6월에 고구려 水臨城人 牟岑(혹은 劍牟：鉗牟岑) 大兄이 遺民을 수습하여 窮牟城으로부터 溟江 南에 이르러 唐의 관리와 僧 法安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하여 서해 史治島(蘇斧島)에 이르러 고구려의 大臣 淵淨土의 아들 安勝을 만나 漢城으로 맞아들여 君王으로 삼고 小兄 多式 등을 (신라에) 보내어 哀訴하였다. “亡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世代를 잇게 하는 것은 천하의 公義이니 오직 大國(新羅)을 바랄 뿐이다. 我國의 先王은 道를 잃어 멸망을 당하였거니와 지금 臣 등이 본국의 귀족 安勝을 얻어 군왕을 삼았으니 (貴國의) 藩屏이 되어 永世토록 盡忠하겠다.” 그리하여 왕은 그를 國西 金馬渚(益山)에 있게 하였다(《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10년).

본래 검모장은 水臨城의 軍指揮官(酋長)으로 抗唐運動을 전개하면서 궁모성·패강(大同江) 남쪽과 사야도를 거쳐 여기서 안승을 만나 고구려왕으로 추대하는 동시에 한성으로 나와서 신라의 후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망해버린 고구려의 正統을 다시 계승한 「高句麗國」을 한성에 수립한 것인데 신라로 망명한 뒤는 「報德國」으로 명명되었다. 여기서 한성은 廣州說<sup>75)</sup>도 있으나 載寧說<sup>76)</sup>이 유력해 보인다. 그런데 司馬光의 《通鑑考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實錄 咸亨 元년에 楊昉과 高侃이 安舜(勝)을 討伐하고 비로소 安東都護府를 拔하여 平壤에서 遼東州로 옮기었다(《資治通鑑》 권 201, 唐記 18, 고종 원년 2년).

74) 村上四男, 〈新羅と高句麗國〉(《朝鮮學報》 37·38합집, 1966), 40쪽.

75) 李丙燾, 《譯註三國史記》, 103쪽.

76) 池內宏, 앞의 책, 426쪽 및 村上四男, 앞의 책, 43쪽에서 載寧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해석의 一說을 좀 장황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들은 抽戶에 의한 안동도호부의 허술한 틈을 타서 함형 원년(670)초에는 평양을 점령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 안동도호부의 移轉에 대해서도 儀鳳 원년(676) 遼東古城(遼陽)으로 옮기고 그 이듬해 新城(撫順)으로 옮겼다는 것만 받아들였는데<sup>77)</sup> 總章 2년(669) 4월 신성으로 移治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총장 원년 12월에 安東都護로 평양에 주재하던 설인귀가 그 이듬해 4월에 신성에서 1년간 통치하다가 咸亨 원년(670) 4월에 吐蕃征討司令官으로 전임했다.<sup>78)</sup> 그런데 그 해 3월에는 신라의 薛烏儒와 고구려 遺將 高延武가 각각 1만씩의 兵力으로 압록강(대동강)을 건너서 唐兵과 싸우고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검모잠의 봉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검모잠 등이 문무왕 9년(669)에 거병하여 그 이듬해초에 평양을 점령했으나 양방·고간 등 당병에 의해 후퇴하는데 이때 신라 설오유가 唐兵驅逐에 나섰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한성(재령)은 당시 신라영토와 평양의 緩衝地였기 때문에 한성의 「小高句麗國」 再興이 가능했다는 것이다.<sup>79)</sup> 위의 고연무는 문무왕 20년 왕의 妹(혹은 金義의 딸)를 안승에게 시집보내자 그 답례로 안승의 奉表를 문무왕에게 전달한 大將軍 太太兄 延武였다. 그런데 검모잠 등이 한성에서 항당운동을 하던 중,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왔다고 하였다.<sup>80)</sup>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사이에는 현실을 대처하는 데, 즉 부흥운동에 극한적 이견을 가졌던 것 같으며, 안승이 아직 어린 나이라면 고연무와 검모잠 사이의 대립적 내분일 것으로 추측된다.<sup>81)</sup>

77) 《舊唐書》권 39, 地理 21 및 池內宏, 앞의 책, 391쪽.

78) 《舊唐書》권 196上, 列傳 146上, 吐蕃 上. 그런데 考異에서 引用文에 이어 “儀鳳元年(676) 二月甲戌 以高麗餘衆反叛 移安東都護府於遼東城 蓋咸亨元年(670)言移府者 終言之也”라고 676년의 移治說을 주장한 점은 문제가 된다.

79) 村上四男, 앞의 책, 43쪽. 村上은 《朝鮮古代史研究》(開明書院, 1978) 속에서 〈漢城의小高麗國〉을 재정리했으나 기본논지는 같다.

80)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高麗.

81) 《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文武王 11년조 薛仁貴書에서 “高麗安勝 年尚幼冲”이라 했으나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高·劍 두 장군이 실질적 지휘자였을 것이므로 나이 적은 安勝을 상징적 王으로 추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三國史記》권 22,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下의 總章 2년(669) 2월에 安勝이 신라로 투항했다는 기록은 史治島로

이상과 같이 평양지역에서 고연무·검모잠 등이 고구려국 부흥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이에 자극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요동지방에서도 항당운동이 일어났다. 즉 문무왕 11년 7월에는 부흥군이 안시성에서 봉기하여 고간에 게 공파당하였다.<sup>82)</sup> 그런데 《三國史記》地理志 끝에 “압록수 이북의 항복하지 않은 11성”이 기록되었는 바, 이들 11성은 고구려가 패망한 668년에 항복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이것은 11성 중에 안시성이 들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확신된다.<sup>83)</sup> 이렇게 고간 등이 요동지방의 고구려국 부흥군을 격파하며 한반도로 남하하자 북진한 신라군은 당군에 대한 적극적 방어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요동지방에서 고구려국 부흥군의 항당운동으로 인해서 儀鳳 원년(676)·2년에 遼陽·新城으로 안동도호부를 옮긴 당 또한 고구려 유민지배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봉 2년에는 寶臧王을 遼東都督朝鮮王으로 봉하여 신성의 안동도호부에 부임케 해서 유민을 무마케 하였다. 그러나 부임한 보장왕은 오히려 靺鞨과 함께 고구려국 부흥운동을 전개하려다가 공주(邛州)로 유배되었다. 이후 그 손자인 寶元이 嗣聖 2년(685)부터 垂拱 4년까지 朝鮮王으로 봉해졌다가 聖曆 원년(698)에는 忠誠國王으로서 안동도호부 지배지역의 고구려인을 진무하도록 하였다. 이 보원도 고구려국 부흥운동세력과 內通하자 성력 2년에 보원 대신 보장왕의 아들 德武를 안동도호로 파견시켰다.<sup>84)</sup> 당의 이 같은 조치는 그것이 비록 안동도호부의 휘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이 고구려인을 무마하기 위하여 세운 또 하나의 「고구려」이며 이를 당이 세운 「小高句麗」라 해도 좋을 것이다.<sup>85)</sup> 이와 같이 당의 강제적 徙民과 자치적 소고구려의 재건에 의한 기미정책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고구려인

망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 설인귀와 平壤에 留鎮하던 劉仁軌는 곧 病으로 돌아가서 監修國史로 있었기 때문에(《新唐書》권 108, 列傳 33, 劉仁軌) 總章 2년(669)~咸亨 4년(673)까지의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82) 《資治通鑑》권 202, 高宗 咸亨 2년.

83) 《한국사》 권 2(국사편찬위원회, 1977), 523쪽에서 677년까지 11개 성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한 대목은 해석상 주목된다.

84) 《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高麗 및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高麗조 참조.

85) 日野開三郎, 〈小高句麗國の建國〉(《東洋史論叢》 8, 三一書房, 1984), 80쪽.

의 고구려국 부흥·抗唐운동은 여러 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바로 이러한 고구려인의 항당과 독립정신은 渤海國을 수립함으로써 계승·성취되었다.

## 5) 대당전쟁

### (1) 대당전쟁의 원인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라는 小國際社會인 삼국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하고자 당과 적극 제휴하였고, 당 또한 강적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당 중심의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신라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상호 외교적 접근이 가능했다. 이것은 당의 고구려 침공의 패배로 나당관계가 진전되어 貞觀 22년(648) 나당군사동맹이 체결되었다. 이후 당의 고구려정벌 장기전략의 일환으로서 顯慶 5년(660) 백제를 패망시켰으나 熊津都督府를 설치하고 留鎮唐兵 1만 명을 사비성에 두어 百濟故地에 대한 당의 직접지배에 들어갔다. 그리고 백제국 부흥군을 진압하자 웅진부와 신라 사이의 山河之盟를 강요하고 경계와 遺民을 현경 5년 이전의 나제 상태로 확정·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문제로 신라를 자극하였다.

다시 總章 원년(668)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패망시키자 고구려의 首都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설인귀로 하여금 2만 명의 당병을 통솔하게 하여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직접지배에 들어갔다.

신라는 9년간의 대가없는 전쟁을 치루면서 당의 치닥거리에 국력만 무수히 낭비하고도 끝내 당에 편속된 州縣으로 전락해서 자주성만 상실했을 뿐이었다. 貞觀 22년(648)의 나당동맹에서 麗濟 양국을 평정하면 평양 이남과 백제영토를 신라에게 준다는 영토분할약정은 일언반구도 없이 당은 오히려 총장 원년 고구려를 패망시키자 신라에게 옛 고구려 영토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즉 설인귀에게 보낸 〈答薛仁貴書〉에서

또 卑列의 城은 본래 신라의 것으로 고구려가 打得한지 30여 년만에 신라가 도로 이 성을 얻어 백성을 옮기고 官吏를 두어 守備하였는데 당이 이 성을 고

구려에 주었다(《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고 하였다. 당이 비열의 諸城을 신라로부터 빼앗아 고구려에 주었다는 말은 그 고구려지역을 당이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당이 탈취해 갔다는 뜻이고 더욱이 約定은 고사하고 찾은 땅도 약탈한다고 공박한 것이다. 이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삼키며, 신라의 뭇은 신라의 힘으로 찾겠다고 선언했다. 즉, 설인귀에게 고구려정벌에서 평양을 함락시키는 데 신라군의 大功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신라 병사는 말하기를 전쟁이 이미 9년을 거쳐 人力이 다 하였으되 양국을 평정하고 보니 누대의 宿望을 이제야 이루었으며 마땅히 나라로서는 盡忠의 恩을 입어야 하고 개인으로서는 效力의 賞을 받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는 것이다. 비록 부드러운 문장이기는 하나 신라 병사들의 輿論을 빌어 9년 동안 전쟁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당이 그 은혜를 갚지 않으면 신라가 스스로 그 대가를 찾겠다는 의지가 도사린 엄청난 의미의 함축이었다고 본다. 더욱이,

또 신라가 백제를 평정한 때부터 忠을 다하고 힘을 바치어 國家(唐)에 負(失)한 바 없었는데, 무슨 罪로 一朝에 저버림을 받는지 알 수 없다(《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고 하였다. 이는 신라가 반역한다는 〈薛仁貴書〉에 대한 부당성을 논박한 것으로, 반역이 아니라 버림받은 신라의 정당한 조치라는 의미가 강하게 숨어 있는 것이다. 여하튼 “雞林大都督開府儀同三司上柱國新羅王 金法敏 白”으로 끝맺은 상기 인용의 〈답설인귀서〉는 強首의 초안으로 추측되는데, 실로 오래 쌓인 분노가 컸기 때문에 시원하게 답했고 對唐戰爭을 이미 결심했던 까닭에 자신에 찬 힘있는 문장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이는 準外交文書로서 10년간 나당과 濟麗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신라 입장에서 연대별로 요약했는 바, 신라의 정당성을 천명함으로써 당의 부당성을 여지없이 지

적·공박한 것이다.

요컨대 신라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전제는 영토분할약정이며 당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과 결전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宣戰布告文이 곧 〈답설인귀서〉라 하겠다. 결국 신라는 영토분쟁과 자주성 손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 흥망을 걸고 대당전쟁을 택한 것이다.

## (2) 대당전쟁의 승리

나당간의 상반된 이해 속에 문무왕 9년(669) 5월 欽純·良圖가 謝罪使로 入唐한 이유는 백제토지와 유민을 신라에서 취한 때문이라 했다. 이에 이듬해 정월 양도는 당의 圓獄에서 殉國하고 흠순은 7월에 귀국하였다.<sup>86)</sup> 이 상황에 당은 신라를 정벌하겠다고 겁박했을 가능성은 너무나 충분한데, 渡唐留學僧 義湘이 당에서 흠순으로부터 “당이 신라를 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신라정부에 이 말을 전하였다.<sup>87)</sup> 의상의 귀국연대는 문무왕 10년(670)과 11년 양설이 있지만<sup>88)</sup> 위의 사실을 참작하면 문무왕 10년초임이 확실하다. 바로 四天王寺의 창건도 이 시기로, 佛力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도 당병을 구축하기 위한 국민적 단결을 호소한 상징적 의미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또 〈답설인귀서〉에서 문무왕 8년의 웅진을 통한 소식에, 당이 선박을 수리하여 밖으로 倭國을 공격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실상은 신라를 치려고 한다는 말이 들렸다는 것이다.

이렇듯 문무왕 8년 직후부터 이미 나당관계는 극히 불안정했고 신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신라는 軍備를 강화하여 一戰을 불사할 태세를 갖춘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신라는 백제 패망 직후 당이 신라까지 침략하려 함을 알고 왕과 김유신·多美公 등이 그 대책을 의논하여 당병과 싸울 것을 결의하는 모습이 보인다.<sup>89)</sup> 이것을 그대로 받

86) 《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10년 정월. 흠순은 문무왕 10년 정월에 還國을 허락받아 7월에 귀국했다(《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答薛仁貴書).

87) 《三國遺事》권 4, 義解 5, 義湘傳敎.

88) 閔泳珪, 〈義湘〉(《韓國의 人物像》3, 新丘文化社, 1963), 89쪽.

89) 《三國史記》권 42, 列傳 2, 金庾信 中.

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당의 태도 여하에 따라 신라의 신축성 있는 대책을 숙의했을 가능성과 당의 웅진도독부 설치에 따른 신라인의 불만과 불안은 능히 추측될 만하다. 비단 문무왕 8년뿐만 아니라 비록 동맹국이라 할 지언정 그들의 大兵을 신라가 접한 적국으로 불러들이게 되었으므로 무열왕 7년(660) 당시부터 그들이 신라까지 해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가졌을 법하고 만일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신라는 고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문무왕 11년의 <설인귀서>에서 “신라왕은 機心을 움직여 邊城에 무력을 기울인다”고 들었다면서 당에 반역하지 말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설인귀와의 서신왕래 시기가 《三國史記》 그대로 인지 모르겠으나, 문무왕 11년은 이미 북방에서 신라가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여 당병과의 전쟁을 강행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신라의 대당전쟁은 고구려국의 부흥군이 당병과 싸우는 현장으로 1만의 신라군을 투입함으로써 개시되었다. 즉 문무왕 10년(670),

3월에 沙湊 薛烏儒가 고구려 太(大兄高)延武와 더불어 각각 精兵 1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屋骨에 이르렀다. 말갈병이 먼저 와서 皆敦壤에서 기다렸다. 夏 4월 4일에 싸워서 우리 군사가 크게 이겨 斬首는 헤아릴 수 없었다. 당병이 이어 이르므로 우리 군대는 후퇴하여 白城을 지켰다(《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10년).

라 하여 3월과 4월에 신라 장군 薛烏儒와 고구려 장군 高延武가 함께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당병과 싸웠다는 것이다. 여기서 압록강은 패강(대동강)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sup>90)</sup> 당은 漢兵을 고간과 말갈병을 가진 李謹行을 파견하였다. 이들 당병은 바다로 온 듯하고, 먼저 도착한 이근행 부대는 패배시켰으나 고간에게는 신라 및 고연무군이 패하여 白城(白水城: 載寧平野)에 후퇴했던 것이다. 이렇게 당병에게 밀려 안승·고연무 등 고구려 부흥집단이, 문무왕 10년 6월, 신라로 망명하여 金馬渚(익산)에 안치되었더라도 그들의 정병은 여전히 신라군과 함께 북방에서 당병을 저지했을 것이다.

결국 신라가 고구려국 부흥군과 합세하여 당병과 싸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90) 池內宏, 앞의 책, 430쪽.

로 그들을 한반도로부터 축출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우선 평양의 북방에서 남하하는 당병을 저지하는 동시에 百濟故地를 攻取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문무왕 10년 7월부터 당이 지배하고 있던 백제고지를 대대적으로 공략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7월에 왕이 百濟餘衆의 反覆을 의심하여 大阿湊 儒敦을 웅진도독부에 보내서 和를 청한 즉, 듣지 않고 司馬稱(禰)軍(백제인)을 보내어 (신라를) 엿보게 하였다. 王이 우리를 도모하려 함을 알고 禰軍을 (신라에) 머물러 두어 보내지 않았으며, 군사를 들어 백제를 칠새, 品日·文忠·衆臣·義官·天官 등은 36城을 攻取하였고 그 人民을 內地(신라)로 옮기었으며, 天存·竹旨 등은 7성을 취하고 敵首 2千을 베었으며, 軍官·文穎은 12성을 취하고 狄兵(唐의 蕃兵)을 쳐서 7천을 베고 戰馬와 무기를 얻음이 매우 많았다(《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10년).

고 하였다. 백제가 신라의 請和에 不從했다든지 신라를 치려 했기 때문에 逆擊했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했고, 왕이 직접 출정한 大兵力은 사전의 면밀한 계획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 戰果만 보더라도 위 인용문의 누계인 82성은 7월 한달간에 획득한 성과였다.

또 문무왕 11년(671) 정월에는 웅진 남쪽에서 백제인과 싸워서 幢主 夫果가 전사했는데, 당병이 백제를 來援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대아찬 眞功에게 甕浦를 지키게 했다. 6월에는 죽지 등이 加林城(林川) 부근의 石城(임천 동쪽 石城里)에서 드디어 당병과 싸워 5,300급을 베고 백제 장군 2인, 당병 장교 6인을 포로한 대전과를 올렸다. 여기서 웅진 남쪽, 가림성 등 현재 충남지방을 공략했다는 것과 전년의 82성이 현재 전라남북도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면<sup>91)</sup> 신라의 전략은 우선 수비가 허술했던 전라도지방을 먼저 공략하고 이어 당병의 본부적인 웅진으로 압축하여 들어갔다고 하겠다. 따라서 석성전투의 당병은 사비성에 주둔했던 1만 명이며 이들을 크게 함몰시켰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포로 속에 백제 장군과 당병이 들어 있는 것은 웅진도독부의 당병과 다수의 백제인으로 편성된 군대가 신라군에 맞섰기 때문이다.

91) 池內宏, 위의 책, 450쪽.

이것으로써 신라는 백제고지의 거의 全地城을 점령했던 것 같다. 이리하여 문무왕 11년 7월에는 所夫里州(扶餘)를 설치하여 阿湌 眞王을 도독으로 삼았다. 불과 1년간에 백제 전지역을 석권하기 위하여 그 이전에 점유했을 金馬渚에 문무왕 10년 6월 고구려 부흥집단을 안치하고, 다시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이유는 바로 당병·백제인을 견제키 위한 신라의 책략이었을 것이며, 나아가 이들을 백제 경략에도 동원해서 당병구축의 선봉에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가 백제 전역을 점거했을 무렵 <설인귀서>가 문무왕에게 전달되어 고간의 漢人騎兵과 이근행의 말갈병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고 한 것은 당의 신라에 대한 應戰을 뜻한다. 문무왕 11년 10월 6일, 級湌 千福 등 신라 수군이 당의 漕船 70여 척을 격파하여 무수한 당병을 水葬시키는 동시에 포로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설인귀가 수군을 錦江口에 정박시키고 웅진을 공격하려다가 신라군에 대패한 것이다.<sup>92)</sup> 이러한 당병의 도래로 북방에서의 전투는 가열되었다. 신라는 남하하는 당병을 저지·구축하여야 했다. 문무왕 10년(670) 전후로 평양지방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한 검모잠 등을 진압한 고간이 그 이듬해 안시성으로 옮겨가고 평양 이남에서 다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검모잠 餘衆의 봉기로 생각된다. 문무왕 12년에 고간·이근행군이 평양에 도착하여 泉山(白水城?)에서 싸웠는데, “新羅援兵 2천 명을 사로잡았다”고 하였다.<sup>93)</sup> 이 전투에 대한 문무왕 11년 9월과 12년 7월의 기록을 보면, 고간이 1만 병·이근행이 3만 병인데 신라군과 고구려군이 합세하여 韓始城과 馬邑城에서 대승하고 백수성까지 진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서 후퇴하는 고간군을 추격하여 石門에서 싸우다가 대아찬 曉川 등 7장군이 전사하는 大敗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羅麗軍은 牛岑城(황해도 金川郡 縣內面 牛峰里)을 거쳐 七重河(臨津江)에 이르렀고, 문무왕 13년 윤 5월에 신라 영내로 귀환한 듯하다.<sup>94)</sup> 바로 이런 상황속에서 문무왕 12년 9월에는 당으로 사죄사를 보냈다. 즉, 백제토벌로 당에 獲罪하여

92) 池內宏, 위의 책, 458~460쪽.

93)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高麗.

94) 村上四男, 앞의 책, 44쪽.



級浪 原川·奈麻 邊山을 사신으로 삼고, 신라에 억류중인 兵船郎長 鉗耳大候 등 5인과 군사 170인을 보내며 사죄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라의 兩端政策으로서 한반도내에 있던 당병을 격파하고, 새로 파견되는 당병과 싸우면서 사죄의 형식으로 당과 외교적 타결을 시도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戰勢는 불리하였다.

황해도 방면에서 싸우던 신라군은 후퇴하여 임진강과 한강 사이의 신라 북경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즉 문무왕 13년(673) 9월에는 당병과 아홉번을 싸워 2,000급을 빼앗고 瓠瀘河(임진강)·王逢(幸州 漢江)에 익사시킨 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 당병은 大楊城과 童子城(江華 通津)을 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당병이 우감성을 항복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격렬한 전쟁 속에 신라는 대아찬 徹川에게 兵船 100척을 주어 서해를 지키게 함으로써 당 수군의 침략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또 처음 태종무열왕이 백제를 멸하고는 戍兵을 없앴으나 이때 다시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되 특히 百濟故地의 수병을 강화했던 것이라 보면 북방에서 당병을 방어하며 통합된 내지에 대한 통치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라 믿어진다.

이 같이 단호한 신라의 대당정책은 더욱 가열된 전쟁으로 고조되었고 문무왕의 왕권까지 부정하려는 감정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즉 당은 왕의 官爵을 삭제하고 唐京에 있던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삼아 귀국하게 하였다.<sup>95)</sup> 따라서 신라는 西兄山과 靈廟寺 前路에서 閱兵을 하였고 薛秀眞이 六陣兵法을 시험하는 등 전력과 전술을 강화하는 면이 현저하였다. 이는 웅당 對唐戰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한편 문무왕 14년 2월에는 宮內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禽獸를 기르며, 그 다음해 정월에 百司와 州郡의 印을 銅鑄하여 반포했다는 사실은 대당전쟁을 낙관한 나머지 內的 體制整備와 아울러 통일신라가 해체될 사치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문무왕 15년 2월에 당은, 유인케가 七重城을 격파한 뒤 군사를 이

95) 《資治通鑑》권 202, 唐紀 18, 고종 上元 원년(674).

끌고 돌아간 다음, 이근행을 安東鎮撫使로 삼아 경략하게 했는데, 신라에서는 다시 당에 사죄사를 보내어 왕의 관작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동과 아울러 백제고지와 고구려 남경까지 州郡을 설치했다는 사실은 효과적 지배체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당전쟁의 종말을 예견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구려 남경 지역에 대한 주군설치는 당에 대한 영토분할약정을 고수하겠다는 신라의 의지표현으로 주목된다.

신라는 당병·거란병·말갈병이 내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9軍의 대병력을 북방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문무왕 15년 9월에 설인귀는 風訓<sup>96)</sup>을 향도로 삼아 泉城에 침입했으나 신라 장군 文訓 등이 逆戰하여 당병 1,014급을 베고 병선 40척을 취했으며 戰馬 1,000필을 얻어 설인귀를 敗走시켰다. 여기서 대패한 설인귀는 다시 문무왕 16년(676) 11월에 부여 앞바다에 나타났다. 이에 사찬 施得이 선병을 이끌고 설인귀병과 所夫里州 기벌포에서 싸웠으나 초전에서 패배하였다. 다시 나아가 대소 22戰으로 적 4,000급을 베고 크게 이겼다.<sup>97)</sup> 이들 海戰은 전황으로 보아 신라의 수륙 양군이 서해의 남북을 누비며 당병을 가차없이 격파했던 것이다.

이제 대당전쟁을 最大回戰이라 할 買肖城전투에 대해 언급기로 하겠다. 이에 대한 자료는,

- ① (上元 2년) 2월에 劉仁軌는 七重城에서 신라의 무리를 대파하였다. 또 말갈을 浮海시켜 신라 南(北)境을 經略하여 많은 무리를 斬獲하였다. 인제는 병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詔書를 내려 李謹行을 安東鎮撫使로 삼아 신라 매초성에 주둔하여 경략할새 세번 싸워 모두 이겼다. 신라는 곧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치고 또 사죄하였다. 上이 赦하여 신라와 범민의 관작을 회복하고 김인문은 中道에서 돌아오자 임해군공으로 고치어 봉하였다(《資治通鑑》 권 202, 唐紀 18).

96) 伏誅된 장군 金眞珠의 아들로 당시 唐에서 宿衛學生으로 있었다.

97) 《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에 薛仁貴가 羅唐戰爭에 참전한 것은 문무왕 11년(671)·15년·16년의 3회로 기록했다. 池內宏은 설인귀가 上阮中 象州로 유배되었으므로 문무왕 15년·16년의 내침은 잘못이며 문무왕 11년 1회만 사실로 보았고 그의 패배도 인정하였다(池內宏, 앞의 책, 460·473쪽). 그러나 제미슨은 그가 유배 이후에도 참전 가능성을 시사했다(제미슨, 〈羅唐同盟의 瓦解〉, 《歷史學報》 44, 1969, 4쪽).

- ② (文武王 15년 9월) 29일 (唐將) 이근행이 20만의 군병을 거느리고 매초성에  
來屯하였으므로 아군이 이를 擊走시켜 戰馬 30,380필을 획득하고 기타 兵器  
의 노획도 이와 같았다(《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5년).

고 하는 두 기록의 전과가 상반되나 《삼국사기》가 정확하다. 단지 이근행의  
軍數는 문무왕 11년(671) 고간·이근행이 도합 4만을 거느렸으므로, 20만은  
지나친 과장이다. 다음 매초성의 위치로 楊州說이 있으나,<sup>98)</sup> 매초성은 현재  
경기도 漣川郡 淸山面 大田一里 「大田里山城」이고, 또 매초성은 買蘇川城이  
며 따라서 ‘매소성’으로 읽어야 하며 지금 漢灘江을 ‘매소천’이라 했을 것으  
로 보기도 한다.<sup>99)</sup> 이 친험의 요새에 이근행군이 주둔하기를 기다려 미리 대  
기하고 있던 신라 9군이 철통같이 에워싸고 대파해 버린 것이다. 이 매소성  
전투를 마지막으로 육지에서의 대당전쟁은 끝난 것이다. 앞에서 본 문무왕  
16년 설인귀군과의 기벌포 앞 해전의 승리로 종결지었다. 이렇게 해서 참으  
로 길고도 험란한 대당전쟁은 문무왕 10년(670)부터 16년까지 7년간에 걸쳤  
고 신라의 승리로 끝맺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할 것은, 당이 왜 전쟁을 종결지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누가 보아도 신라와 당은 국력의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신  
라가 사죄사를 보냈기 때문에 고종이 이를 허락하는 형식으로 당의 체면을  
세우고 더 이상 用兵하지 않았다<sup>100)</sup>고 한다. 다른 이유없이 이것이 설득력을  
갖는다면 唐帝의 寬大性일 수밖에 없으나 이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그런  
데 다음 자료는 주목된다.

그 뒤 신라가 外叛하니 高宗이 發兵하여 토벌하려 하였다. 그때 文瓘은 病  
으로 在家했다가 곧 병든 몸을 수레에 싣고 고종 뵙기를 청하였다. (장문관이)  
아뢰되, “근래에 吐蕃이 犯邊하여 군대를 주둔시키고 邊境을 寇掠합니다. 신라  
는 아직 순종하지 않지만 군대가 唐土內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서를

98) 池內宏, 앞의 책, 469쪽.

99) 《中央日報》, 1968년 6월 9일자 6면.

買蘇川城 전투에 대해서는 《三國史記》권 43 列傳 3 金庾信 下에 앞서 唐兵에  
게 패한 元述에 대하여 “至乙亥年 唐兵來攻買蘇川城 元述聞之 欲死之以雪前恥  
遂力戰有功賞”이라 하였다

100) 池內宏, 앞의 책, 484쪽.

함께 정벌한다면 신은 백성이 그 폐해를 건디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用兵을 멈추고 修德하여 백성을 안도하도록 청합니다.” 하여 고종이 이에 따랐다(《舊唐書》 권 85, 列傳 34, 張文確).

장문관은 더욱 급박한 토번의 당내 침입을 내세웠지만, 신라정벌 반대론자임이 분명하며, 그 뜻을 말할 수 있고 고종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唐朝의 분위기와 外患의 상황이 긴박했다는 사실이다. 토번은 661년 6월에 吐谷渾을 공격함으로써 당과의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700년에 잠시 당과 화해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설인귀는 670년 4월에 토번정벌의 실패로 제명되었고, 676년 유인궤도 그 정벌에 참전하였다. 또 7세기 이후 거란과 돌궐의 鐵勒이 叛唐하고 있었다.<sup>101)</sup> 신라는 바로 이 같은 당의 외환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하튼 국가의 흥망을 걸고 대당전쟁을 전개하여 승리함으로써 신라의 자주성과 국익을 戰取할 수 있었다.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1) 민족융합의 문제

신라의 삼국통일은 미리 민족적 동일성을 내세우면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삼국간의 격렬한 대립 속에 자기보존의 방편이 상대국의 吞併이라는 國家意識으로 깊이 작용한 결과였다. 삼국통일의 주체적 당사국인 신라는 三韓을 한 국가로 통합했다는 ‘一統三韓’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삼한은 삼국을 상징했기 때문에 신라인은 고구려·백제가 같은 韓族이라는 동족의식을 가졌던 것이라 한다.<sup>102)</sup> 그런데 동족의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어의 동질성을 꼽을 수 있다. 《三國史記》本紀·列傳을 보면 삼국인 사이에 의사소통상 언어의 장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지만, 언어학자의 연구에서는 삼국간에 상당한

101) 申滢植, 《統一新羅史研究》(三知院, 1990), 15~16쪽.

102) 邊太燮, 〈三國統一의 民族史的 意味〉(《新羅文化》 2, 東國大, 1985), 58쪽.

거리감을 갖고 있었다. 즉 오늘날 우리 국어의 가장 이른 단계를 夫餘韓祖語라 가정할 때, 고구려·신라·백제어는 여기서 갈려나온 것인데 삼국의 후기에 서서 볼 때 夫餘系와 韓系의 分岐를 1천 년 이상으로 추측하였다.<sup>10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적·문화적으로 동질적 성격을 지닌 國家群으로<sup>104)</sup> 상호의존적 균형을 취하면서 비교적 자주 접촉하는 동안에 비록 자각된 것은 아니더라도 동족적 친근감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것이 신라에 의한 國體의 통합과 새로운 지배질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츰 신라국민으로서 더욱 동질성을 자각하면서 동족의식이 뚜렷해졌을 것이며 민족적 융화가 촉진되었을 것이다.

무열왕 7년(660) 이래 신라는 일부 백제토지와 유민을 흡수하여 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11월에는 포로한 백제인 중에서 좌평 忠常·常永과 達率 自簡에게 一吉浪(7등위)을 주어 총관으로 임명하였고 恩率 武守에게는 大奈麻(10등위)에 大監職을 주었다. 또 은솔 仁守는 대나마에 弟監으로 삼았다. 이들은 才質을 고려한 임용이라 했는데, 실은 백제국 부흥군 진압에 동원키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이들이 백제의 포로나 降卒을 인솔하고 출전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 문무왕 원년(661) 2월에는 충상을 아찬(6등위)으로 승급시켜서 사비성을 공격하는 백제국 부흥군을 진압하는데 참전시키고 있다. 다시 그 해 7월 17일에는 충상이 品日 등과 함께 上州總管에 임명되고, 自簡은 眞欽 등과 下州總管에 임명되었다. 이들 신라군은 당의 고구려 침공에 상응하여 북상하다가 백제국 부흥군을 진압하였다. 신라에서는 雨述城에서 항복한 달솔 助服을 급찬(9등)에 古陁耶郡(安東) 태수로 삼았고, 은솔 波伽에게 급찬에 田宅과 衣物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들 또한 일부 백제 유민과 동반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백제정벌과 백제국 부흥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항복한 백제 장군들은 다시 전쟁터에 동원하기 위하여 임시로 관등과 관직을 수여하였으

103) 李基文, 〈古代 三國의 言語에 대하여〉(《27회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84), 37쪽.

104)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韓國史研究》 38, 1982), 129~156쪽.

나 문무왕 11년부터 백제가 평정·통합됨에 따라서 백제 유민에 대한 대처 방안이 대두한 듯하다. 그것은 주로 백제의 관료와 장군 등을 신라의 官僚組織體系內로 흡수할 때의 처우규정으로서 문무왕 13년에 확정되었다(〈표 4〉 참조). 그러나 바로 이 시기는 한창 나당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유민 가운데에서 대당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유용한 재질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라가 백제 전지역을 정복하면서 대당전쟁을 더욱 활기있게 추진할 인적자원을 종래 신라인 수만큼이나 더 얻은 셈이지만 백제 유민은 대당전쟁에 그렇게 많이 동원된 것 같지는 않다. 신라로서는 단지 이들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일 또한 큰 과제였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구려가 패망한 문무왕 8년을 전후하여 그 유민도 적지 않게 신라로 망명·투항해 왔다. 즉 문무왕 6년에는 고구려 대신 淵淨土(淵蓋蘇文의弟)가 12城 763戶 3,543人을 가지고 투항하였다. 신라는 연정토와 그 從官 42인을 왕도·州府 등에 안치시키고 衣物·糧料·家舍를 주어 새로운 정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12성 중에서 8성은 성읍 백성이 온전함으로 士卒를 보내서 지키게 했던 것이다. 또 문무왕 8년 11월 5일 신라군이 고구려정벌을 마치고 개선할 때 포로 7,000人과 함께 입경하였다. 다시 문무왕 10년 6월에는 안승 등 고구려국 부흥운동 4,000호가 망명해 왔다. 문무왕 13년에 호로하(임진강)에서 신라군이 唐將 이근행의 군에게 밀리면서 “餘衆은 모두 신라로 달아났다”고 한 이 ‘여중’은 신라군과 함께 항당하던 고구려국 부흥군일 것이다.<sup>105)</sup> 이렇게 수차에 걸쳐 신라로 망명·투항한 고구려 유민은 공식적 집계만도 30,543명인데 이 숫자는 7세기 당시로는 엄청난 것이다. 여기에 점령한 고구려 남경의 토지와 유민까지 참작하면 놀라운 팽창이었다.

이들 고구려 유민의 상당수는 문무왕 10년 이후 백제고지의 정복과 대당전쟁에 동원되었을 것이나 문무왕 16년에 나당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이들 고구려 유민에 대한 조치가 정책적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

105) 《三國史記》권 22, 高句麗本紀 10, 말미 總章 4년.

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투항·포로한 고구려 유민은 따로 신라 內地에 분산·안치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 고구려국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안승집단은 신라로 망명하면서 금마저에 머무르게 했는데 거의 독립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안승집단은 문무왕 14년까지 「고구려」라 했을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報德國」으로 冊命하여 신라 스스로 宗主的 의미를 강화하면서 그들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아직 나당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은 이들 집단의 성격은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문무왕 20년에 왕의 누이를 안승에게 시집보내고 문무왕 23년에는 그에게 蘇判(3등위)을 주는 동시에 金氏로 賜姓하여 甲第와 良田을 주어 京都에 살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보덕국은 안승을 왕으로 문무왕 23년까지 고구려 官制를 사용하면서, 신라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다. 문무왕 16년에 나당전쟁이 끝나고 7년이 흘러간 이 시점에서 신라가 통일국가로서 새로운 통치체제를 재정비함에 안승집단은 이제 장애가 될 뿐더러 신라로서는 그들을 흡수·융합할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믿어진다. 신라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여 신문왕 4년에 안승의 族子로 장군인 大文 등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신라군에게 진압되면서 餘衆을 남쪽 州郡으로 옮김으로써 고구려국 부흥집단은 사라졌다. 그러나 이들 고구려 유민 중 관료나 장군이었던 유력한 자들을 신라 관료조직내로 흡수하기 위하여 그 처우규정을 신문왕 6년(686)에 제정하였다(〈표 5〉 참조).

〈표 4〉 백제 유민에게 주어진 신라 관계

百濟 官階		新羅 官階			
官階	官階名	中央官階	中央官階名	地方官階	地方官階名
2	達率	10	大奈麻	4	貴干
3	恩率	11	奈麻	5	選干
4	德率	12	大舍	6	上干
5	扞率	13	舍知	7	干
6	奈率	14	吉舍(幢)	8	? 伐
7	將德	15	大烏	9	? 尺

〈표 5〉 고구려 유민에게 주어진 신라 관계

高 句 麗 官 階		新 羅 官 階	
中央官階	中央官階名	中央官階	中央官階名
3	鬱折(主簿)	7	一 吉 飡
4	太大使者(大相)	8	沙 飡
5	皂衣頭大兄(位頭大兄)	9	級 伐 飡
6	大使者(從大相)	10	大 奈 馬
7	大 兄	11	奈 馬
8	收位使者(儒相)	12	大 舍
9	上位使者(狄相)	13	舍 知
10	小使者(小相)	14	吉 土(吉次)
11	小 兄	15	大 烏(烏知)
12	諸 兄		
13	先 人		
14	自 位		

이상 백제인과 고구려인에 대한 두 표를 비교하면 백제인은 京位 대나마(10등위)가 최고 관등이고 귀간 등 外位도 수여하도록 규정하였다. 고구려인에게는 일길찬(7등위)·사찬(8등위)을 상위 관등으로 규정하여 백제인보다 두 등급을 높게 책정했으나 이것은 큰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고구려인으로 최고 관등을 받은 主簿가 地籍圖나 戶籍을 작성하는 技能人이었다면,<sup>106)</sup> 통일 직후 폭증된 인구나 확대된 영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주부는 매우 긴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 같은 필요에서 주부를 최고 관등으로 대우했다면 그 영향은 新羅帳籍에까지 미쳤을 것이 분명하나, 경덕왕 18년(759)에는 調府·禮部 등의 大舍(12등위)를 주부라 고치는 것으로 보아, 주부의 직능도 단순한 文書記錄官으로 전락하고 그 등급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초기의 여제에 대한 이러한 흡수·융합정책은 이후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신라정부가 고심한 흔적은 안승집단의 처리과정에서 현저히 볼 수 있다. 더욱이 신문왕 5년(685)에 지방행정구획을 재편성함에 있어 신라로 통합된 전 영역을 9州·5小京으로 나누었다. 옛 신라 땅을 3州

106) 李昊榮, 〈三國時代의 敗政〉(《國史館論叢》 13, 國史編纂委員會, 1990), 106쪽.



로, 옛 백제 땅을 3주로, 옛 고구려 땅을 3주로 각각 數的 均分을 의도한 것은 여제인을 같은 통일신라인이라는 同質化政策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또 9摺幢에 신라인뿐 아니라 백제·고구려·말갈인으로 조직한 이유는 이들을 포섭과 회유하는 동기에서 나온 민족융합정책이라는 것이다.<sup>107)</sup>

한편 삼국의 국민은 공통적으로 佛敎를 신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라정부에서는 불교를 통해 亡國으로 격앙된 여제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였으며,<sup>108)</sup> 熊川州 출신인 高僧 憬興을 國老로 우대한 것은 민심을 수습하려는 정책과도 상통된다고 할 수 있다.<sup>109)</sup>

물론 이러한 일련의 민족융합정책에 대하여 회의적·부정적 견해도 있다. 즉, 통일 후 신라정부는 여제 유민을 제도적 장치로 차별하였기 때문에 그들 유민은 망국의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라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은 내심에 잠재한 國系意識을 쉽사리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sup>110)</sup> 그러나 신라인을 중심으로 여제인을 차별한 것인데, 그 차별의 정도는 인류의 역사변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산물인 동시에 시대적 한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신라는 여제 유민과 함께 대당전쟁을 승리로 끝맺으면서 이들 유민을 흡수·융합하고자 고심한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 첫째 투항·망명한 유민은 신라 內地에 분산·안치시켰고, 둘째 유민 가운데 지배층은 신라 관료 조직 속으로 흡수하였다. 셋째 신라와 옛 여제지역을 9주로 나누었고 5소경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구획편제에 평등을 취하려고 한 것이다. 넷째 불교로 유민의 정신적 안정과 그 수습을 배려한 듯하다. 이와 같이 증가된 국민과

107) 邊太燮, 앞의 책, 63쪽.

필자는 9州·9서당 등의 제도는 중국의 天下思想을 도입하여 新羅가 天下를 지배한다는 新羅中心思想의 표징으로 보았다.

108) 金相鉉, 〈新羅 三國統一의 歷史的 意義〉(《統一期의 新羅社會研究》, 新羅文化研究所, 1987), 397쪽.

109) 許興植, 〈新羅佛敎界의 組織과 行政制度〉(《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8, 1987), 150쪽.

崔根泳, 앞의 책, 60쪽에서 文武王이 그를 國師로 임명하려 했으나 ‘曲爲國老’한 사실(《三國遺事》권 5, 感通 7, 憬興遇聖)은 차별한 처사로 보았다.

110) 崔根泳, 위의 책, 63쪽.

확대된 영토를 新羅化하려는 정책을 추구했는데, 이런 융화정책이 민족형성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신라의 삼국통일은 비록 그것이 불완전했더라도, 新羅史의 입장에서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후 韓民族史 展開過程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후대 史家들의 회의적이고 부정적 견해로 말미암아 역사적 진실이 가려진 채 혼돈된 修辭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 부정적 견해의 근본적 원인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역사진행의 현장인 당시 상황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후대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불만의 입장에서 각자 숨겨진 목적 실현에 맞추어 멋대로 해석하는 好材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족주의 사학자 申采浩는 일제의 강점에 의한 한국의 피식민 상황에서 자주와 독립을 되찾으려는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 역사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유구한 역사의 자궁과 강력한 힘의 투쟁이 요청되었던 까닭에 고조선·고구려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 것으로 믿어진다. 더욱이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고구려의 끈질긴 대중국 투쟁을 부각하는 한편 당과 제후하여 고구려 및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를 증오하여 낮추어 평가했다고 보인다. 그것은 대당외교를 강화하여 나당군사동맹을 체결한 金春秋를 事大主義의 병균을 전파한 주인공으로 평가했고, 또 통일의 공이 컸던 金庾信에 대해서도 “대개 김유신은 智勇있는 名將이 아니요 陰險驚悍한 정치가이며 그 평생의 大功이 戰場에 있지 않고 陰謀로 隣國을 亂한 자이다”라고 하였다.<sup>111)</sup> 이러한 평가는 국권회복이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족적 단결이 요청되었던 상황에서 강조되었던 까닭이었다.

우선 신라의 삼국통일은 신라국의 획기적 發展의 계기였다. 삼국은 모두 동일종족·동일민족적 특성을 공유했지만 장구한 세월 동안 분리되어 성장

111) 《丹齋申采浩全集》上(螢雪出版社, 1979), 325~329쪽.

하면서 삼국 그 자체가 小國際社會를 형성하고 대립해 왔던 것이다. 신라는 고대국가의 건설과 유·불교의 문화수용과정에서 고구려·백제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력균형을 취해 왔지만, 신라의 後進性은 좀체로 극복되지 못했던 것이다.<sup>112)</sup>

그러나 고구려의 北守南進政策에 자극된 나제동맹이 120년간 지속되는 동안 신라는 유·불 등을 통해서 문화국가의 면모를 과시했고, 加耶 병합과 한강 유역 정복으로 자국의 국력에도 자신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와 영토 확장과정은 곧 후진성 극복과정이기도 하여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를 自國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갔는가에 주목한다면 신라의 그 정확한 판단과 저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신라는 6, 7세기에 있어서 내외의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줄 알았던 국가의식·국민의식·문화의식을 조화있게 갖추고 있었다. 대내적 권력 투쟁도 서서히 안정되었고 급격한 유혈사태에 의해 주체적 변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신라는 중국대륙의 정세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면서도, 먼저 작은 국제사회인 삼국관계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것은 신라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백제와의 항쟁을 고구려와 교섭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고구려에의 청병이 실패되자 비로소 당과 더욱 적극적으로 교섭하였다. 당은 그의 패권주의적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신라를 끌어들이는 셈이지만, 신라의 단계적인 외교의 적중이 그렇지 못했던 고구려·백제와 비교되어 결국 신라는 뛰어난 국제감각으로 현실을 대처하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신라는 백제·고구려를 패망시키기까지 표면상 당과 주종관계에서 있었으나, 그것은 신라의 자주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 외교였을 뿐이었다. 바로 국가의 흥망을 건 대당전쟁은 표면상 유보되었던 주체성 회복운동인 동시에 전쟁 전의 영토분할약정을 지키지 않았던 당을 응징하고 국익을 되찾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신라의 참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112) 金哲垸, 〈統一新羅·支配體制의 再整備〉(《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77), 30쪽.

신라가 한반도로부터 수만의 당병을 패퇴시켰을 때 신라의 北境은 임진강에서 함경남도 德源에 이르렀다. 문무왕 8년(668)에 比列忽州를 다시 설치하고 15년에는 현재의 덕원으로 비정되는 鐵關城을 축조했던 데서 알 수 있다.<sup>113)</sup> 이렇게 東北境은 크게 북상해 있었고 서북경은 통일 이후 점차 북쪽으로 확대하던 중 발해를 견제시키려는 당이 신라에게 平壤 이남의 영유권을 공인함으로써 聖德王 34년(735)부터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연결하는 북경이 설정되었다.<sup>114)</sup> 이 같이 신라의 영토와 인구는 종래의 약 3배로 팽창되었고 이것은 참으로 신라의 획기적 발전이기 때문에 종래 삼국기의 「신라」와는 달리 「통일신라」라 명명하는 데 인색할<sup>115)</sup> 필요가 없다.

물론 신라의 통일은 완벽하게 삼국을 다 포함하지 못했고 고구려 남쪽 일부를 영유했으면서 삼한을 삼국으로 의식한 「一統三韓意識」에 의하여 「삼국통일」로 간주되어 왔고 때로는 「半島統一」이라는 실증적인 말로도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民族의 활동무대가 축소되었다든지, 요동과 만주지역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는 하나, 그 책임을 신라에게 전가시킬 이유가 없다. 異族인 唐을 끌어들여 동족을 멸망시킨 신라를 반민족적 행위로 보려는 民族主義史學은 국가를 잃은 민족으로서 국가건설을 목적인 그 당시의 상황논리를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논리가 그 글의 行間에 들어 있지 않다면 굳이 민족주의사학이라 할 이유가 없다. 또 오늘날에도 민족만을 주장하는 史學이 있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이 민족 속에 매몰된 다분히 이념적 사학이며 역사적 현실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민족과 국가와 국민을 판별할 줄 아는 사학이 절실히 요청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민족의식이 없었거나 있었다라든 지극히 박약했던 때에 신라는 당을 이용하면서<sup>116)</sup> 고구려·백제 양국을 패망시켜서 고구려의 많은 유민을 흡수하였고 백제를 정복·통합하여 삼국 중 자국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최선책을 실현함으로써 생명력 있는 민족 국가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113) 池內宏, 앞의 책, 478쪽.

114) 李基東, 〈新羅下代の 溟江鎮〉(《韓國學報》4, 一志社, 1976) 참조.

115) 김영하, 〈신라 삼국통일은 타당한가〉(《역사비평》20, 역사비평사, 1993), 190쪽.  
통일신라를 중세라 하면서 ‘통일’을 빼고 ‘신라’라고만 하자는 것이다.

116) 申滄植, 앞의 책(1990), 37쪽.

본래 삼국은 血統・言語・習慣이 비슷하였는데,<sup>117)</sup> 이제 전 백제인과 상당수의 고구려인들이 흡수된 통일신라는 한 국가의 같은 영역 안에서 같은 문화를 향유하게 된 국민으로 정착함에 따라 참으로 민족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잠시 後三國으로 분리되었다가도 高麗國에 의한 再統一이 당연히 된 것은 그 동안 민족적 응집력을 하나의 국민의식으로 축적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신라의 기반 위에서 고려를 지나 조선조 초기에 이르면서 750여 년간의 꾸준한 북진 끝에 현재의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회복・확대할 수 있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자주성 회복과정은 곤혹스러운 삼국 상호항쟁과 국가 이익에 앞선 대당관계를 신라 특유의 대응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당차게 극복한 패거의 역사이기도 하다. 만일 생명력있는 한민족의 현재를 긍정한다면 신라가 수립한 창조적 전통과 역사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와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李昊榮〉

117) 申滢植, 〈新羅統一의 歷史的 意義〉(《新羅史》, 梨大出版社, 1985), 38쪽.